RUSSIA IN&OUT

RIO

2026. 6 | No. 26

특집 기획 미국 기축통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이슈 진단 아르메니아 총선 여파: 러시아는 남캅카스에서 '패배'했는가?
RIO 초대석 노영남 LG전자 지역 총괄 대표, 문화로 러시아와 소통을 잇다
크렘린 전망대 '추모와 애도의 날', 6월 22일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경제 내비게이션 SPIEF 2026: 러시아는 서방 복귀를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역사 프리즘 카를 네셀로데, 러시아 외교 재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예술 현장 '러시아 숲': 이반 시시킨 특별전의 의미
미디어 트렌드 전선 밖의 드론, 일상 공간과 역사 기억을 강타하다



ISSN 3091-9371 (Print) | ISSN 3091-9487 (Online)

Photo Essay

모스크바의 남쪽 오룔주에 있는 영지 스파스코예-루토비노보는 작가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의 고향이다. 어머니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루토비노바 가문이 소유하던 이 저택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나중에도 집필과 창작을 위해 이곳을 자주 찾았다. 아쉽게도 1906년 화재로 옛 건물은 사라졌으나, 지금은 원래 모습으로 복원됐다. 위대한 작가를 기리는 이 박물관에는 투르게네프의 개인 소장품 1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예전에는 본관 앞에 작가가 어렸을 때 심은 참나무가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198년 동안 자라던 이 나무는 2021년 강력한 돌풍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처럼 역사와 문화, 지구의 기후 변화 현상이 서로 맞물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사진·글: 콘스탄틴 코코시킨]

발간사

"테니스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 러일 전쟁의 전세가 기울었다는 긴급 보고를 하는 시종무관에게 니콜라이 2세가 준 대답이다. 베네수엘라, 이란을 공격하는 동안 트럼프 아들이 투자한 드론 기업의 주가는 하루 만에 65% 이상 폭등하고 트럼프 일가가 이 기간 암호 화폐로만 10억 달러,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방문한 트럼프의 마러라고 리조트는 7,700만 달러를, 이를 비판하는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트럼프는 합의금으로 8,650만 달러를 벌었다. 러일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만 약 5만 명, 부상자를 포함하면 146,000명, 이란 전쟁에서 사망한 이란과 주변국 사람은 8천 명이 넘고 부상자가 5만 명에 이른다. 윌리엄 D. 하텅 등이 쓴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는 결국 명분이고 나발이고 극소수의 돈벌이가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외교협회가 참전 결정 보고서를 국무부에 올렸는데, 이는 미국 대기업들의 의뢰로 작성됐다. 자본의 손익계산 결과임을 숨기기 위해 보고서에는 참전 명분을 공식적으로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애국이라고 공표할 것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작자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가 『생명의 불꽃』에서 주인공을 통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에 동원되고 그 희생마저 상품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RIO 26호에서 「역사 프리즘」은 러시아 민중에게는 크림 전쟁의 패배를, 자신에게는 꽃과 미식을 선사한 러시아 제국의 최장수 외교부 장관을, 「크렘린 전망대」는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민중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날마저 정치적 효용성에 따라 변주됨을, 「미디어 트렌드」는 일상의 공간까지 위협하는 드론이라는 전쟁의 망령을 소개한다. 「특집 기획」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축통화 전쟁에 우리도 모르게 희생되고 있는 우리 자산의 운명을, 「이슈 진단」에서는 열강의 지정학적 경쟁에 휘말린 아르메니아의 비극을 다룬다. 「경제 내비게이션」은 서방과의 전쟁 속에서 탈서방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RIO 초대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내 입지를 잃어가는 한국 기업의 새로운 모색을, 「예술 현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품는 러시아 대자연에서 희망을 조명한다. 일상이 된 전쟁의 숨은 실체를 밝히는 동시에 전쟁을 극복하는 지혜를 찾기 위한 RIO의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26년 6월 30일

편집위원회

RUSSIA IN&OUT

RIO 2026년 6월호 No. 26

편집주간 김현택
편집위원 라승도, 박종호, 이대식, 김유정, 이태훈, 임명묵
디 자 인 김지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3호
https://rioins.kr
info@rioins.kr

차례

각 차례 제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4 | 특집 기획
미국 기축통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창익

닉슨 쇼크 이후 50여년 만에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에 육박하고, 한 해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위기에 처한 미국 달러 패권의 연장 전략을 들여다본다.



15 | 이슈 진단
아르메니아 총선 여파: 러시아는 남캅카스에서 '패배'했는가? 임명묵

6월 7일 아르메니아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아르메니아 정치 변동이 남캅카스 지정학 경쟁에 미친 파장을 살펴보고, 친서방 성향의 니콜 파시냔 총리 재선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26 | RIO 초대석
노영남 LG전자 지역 총괄 대표, 문화로 러시아와 소통을 잇다 김현택

최근 5년 동안 러시아에서 근무한 노영남 대표를 만나, 눈에 띄게 변한 시장의 분위기, 고군분투 중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 경제·통상 분야의 향후 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41 | 크렘린 전망대
'추모와 애도의 날', 6월 22일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라승도

6월 22일 대조국전쟁 발발 85주년에 즈음하여 이날이 옐친 시대에 '추모와 애도의 날' 기념일로 제정된 배경과 푸틴 시대에 새로 생긴 전통 속에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살펴본다.



50 | 경제 내비게이션
SPIEF 2026: 러시아는 서방 복귀를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박종호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서방 복귀를 더는 기다리지 않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현장 소식을 전한다.



62 | 역사 프리즘
카를 네셀로데, 러시아 외교 재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나탈리야 탄시나

제정 러시아 시대 외교 재상 카를 네셀로데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펴보고 그의 외교 정책과 생애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적 오해를 다시 돌아본다.



77 | 예술 현장
'러시아 숲': 이반 시시킨 특별전의 의미 라승도

2026년 봄부터 가을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반 시시킨. 러시아 숲' 전시회를 통해 '숲의 차르'로 불리는 화가 시시킨의 숲과 나무 그림들의 의미를 고찰한다.



85 | 미디어 트렌드
전선 밖의 드론, 일상 공간과 역사 기억을 강타하다 김유정

드론 공격 보도를 통해 러시아 언론이 박물관·성지·도시의 일상 공간에서 발생한 피해를 역사 기억과 정보전, 전쟁의 일상화라는 서사로 재구성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짚어본다.

글로벌 기축통화 경쟁을 진단하다

전 세계 지정학적 단층선이 요동치는 가운데 80여년 넘게 굳건하게 전 세계 금융을 독점한 미국의 달러 패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연방 부채의 기하급수적 팽창,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BRICS)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탈달러화와 대안적 결제 체계 구축 시도 등은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실물 경제의 생산성 우위를 재탈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자산화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1970년대에 그랬듯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글로벌 기축통화의 역사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단계 미국과 중국 간의 기축통화 경쟁과 그 사이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연재 순서

1. 기축통화 탄생과 지속의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2. **미국 기축통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3.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4. 러시아가 꿈꾸는 글로벌 금융 질서는 무엇일까?

미국 기축통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창익 경제·경영·금융 분야 전문가

‘기축통화는 필수 원자재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

기축통화의 개념을 교과서에서는 ‘국제 거래에 쓰이는 화폐’로 정의한다. 현실에서 그 개념은 이보다 더 냉혹하다. 기축통화란 누구나 필요로 하는 원자재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이다. 미국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금이란 실물 담보가 없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를 통제했다.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맺고 50년간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한 것이다.[1]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팔아 번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래가 성사됐다. 무역적자로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는 국채 투자를 통해 미국으로 다시 환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하루 1억 배럴의 석유가 오직 달러로만 결제된다.[2]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라고 하면, 전 세계는 석유를 사려고 하루 100억 달러(약 15조 원)를 구해야 하는 셈이다. 매일 1,00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도 위안 결제를 하지 못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이 달러 결제를 여전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파트너로 석유를 통제하면서, 중국을 달러 시스템 안에 종속시킬 수 있었다. 달러 결제망(SWIFT)에서 배제된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제조업 수출 국가인 중국에는 경제 파탄을 의미한다. 석유라는 필수 원자재를 지배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한다. 페트로 달러 밀약은 지난 2024년 50년 만기가 지났다. 이후에도 석유는 여전히 관성적으로 거의 달러로만 결제된다. 하지만 그 통제력은 예전만 못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빈 살만 왕세자와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 중국이 석유의 위안 결제를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의 석유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OPEC 석유의

> “미국의 달러 패권 연장 전략을 이해하려면 석유 이후 미국이 통제하려는 원자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전략적 유용성이 떨어진 것도 페트로 달러 체제가 약해진 이유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필수 원자재에 대한 통제력이 달러 패권 유지의 관건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달러 패권 연장 전략을 이해하려면 석유 이후 미국이 통제하려는 원자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40조 달러 부채와 금의 귀환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은 달러의 발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을 산업 원자재로 격하하려는 공작을 치밀하게 전개했다. 1974년 당시 재무부 장관 조지 슐츠(George Shultz)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아서 번스(Arthur Burns)는 민간의 금 거래를 허용했다. 1934년 대공황 당시 금 준비법이 발표되면서 미국에서는 금의 사적 소유가 금지됐었다. 동시에 뉴욕 상품거래소(COMEX)에 금 선물 시장을 출범시켰다. 이 공작의 본질은 선물거래를 통해 실제 금보다 훨씬 많은 ‘종이 금(Paper Gold)’을 만들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금값을 억누르는 것이었다. 이어 미국 재무부는 1976년 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변동환율제를 공식화하는 킹스턴 체제를 타결시켰다. 또 IMF 보유 금 2,500만 온스를 팔아 금 가격 상승을 막았다. 금 원자재화 공작의 정점은 회계 규정에서 금의 등급을 격하한 것이다.[3]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1988년 제정된 바젤 I과 2004년 도입된 바젤 II 규제를 통해 금을 가



페트로 달러 탄생의 주역 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닉슨 미국 대통령 ⓒ 위키피디아

격 변동 리스크가 100% 반영되는 '3등급 자산(Tier 3 Asset)'으로 낙인찍었다.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이 금을 보유할 경우 5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장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IMF 역시 자체 회계기준(BPM)과 국가 외환보유고 통계 가이드라인에서 금을 준비금이 아닌 '산업 원자재'로 분류하도록 강제했다. 은행이 금을 보유하려면 막대한 위험가중자산(RWA) 충당금, 즉 현금을 쌓아야 하도록 회계 규정을 사실상 바꾼 것이다. 이런 공작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팔아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를 사도록 유도했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영국 재무부 장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실물 금 395t을 역대 최저점(온스당 약 275달러)에 투매한 이른바 '브라운 바텀(Brown Bottom)' 사건은 영·미 금융 카르텔이 금의 화폐적 가치를 살해하려고 단행한 대표적인 공급망 교란 공작이다.[4]

금 찍어누르기 공작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준비금 1순위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저금리 신용대출로 재정을 본격적으로 운용하는 기축통화 패권국이 됐다. 이후 찍어낸 국채 규모가 40조 달러에 달하면서, 채권자들이 신용대출을 더는 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용대출이 한도에 달하면 은행은 더 많은 이자나 담보물을 요구하듯, 미국 국채 매수자들도 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갚아야 할 이자만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며 국방비를 웃도는 상황이 됐다.[5] 패권국가의 국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면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하는 건 미국 정부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결국 미국은 담보대출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쌓아 올린 달러 신용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파산을 전 세계에 폭로한 일대 사건이었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양적완화가 시작되자, 유로화의 붕괴를 막으려는 유럽중앙은행(ECB)과 탈달러 노선의 대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향한 역공작을 전개했다. ECB는 실물 담보도 없는 '미국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둔갑시켜 전 세계에 유포한 것이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ECB는 신용이 아니라 오직 '물리적 실체'만 인정하자는 '바젤 III' 체제를 설계하여 미국을 정조준했다. 이 공세의 핵심은 금을 미국 국채와 대등한 '1등급 자산(Tier 1 Asset)'으로 100% 복권시킨 규정이었다.[6] 유럽의 다음 타깃은 실물 금 없이 장부상 기재(100배~400배 레버리지)만으로 금 가치를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던 월가의 '종이 금' 시장이었다. 유럽은 바젤 III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라는 가혹한 회계 기준을 도입하여, 월가 은행들이 실물 없는 '종이 금' 계좌를 운영할 경우 그 자산 가치의 85%에 달하는 현금(필요안정자금, RSF)을 손실 충당금으로 강제 적립하도록 명시했다. 미국은 '금은 이자가 없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논리로 시간 끌기를 했다. 이

> "미국의 양적완화가 시작되자,
> 유로화의 붕괴를 막으려는 유럽중앙은행과 탈달러 노선의 대표 국가인
> 중국과 러시아는 금의 가치 복권과 대량 매수 등으로
> 미국을 향한 역공작을 전개"

들은 기술적 검토를 핑계대며 바젤 III의 최종 이행 시점을 10년 넘게 집요하게 연기시켰고, 자체 규정을 따로 통과시키며 미국 국채의 독점권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매달 수십t의 실물 금을 쓸어 담으면서 전황이 급변했다. 결국 ECB(2021년 6월)와 영국 영란은행(2022년 1월)이 바젤 III 개정안의 전격 발효를 최종 선언하자 미국은 무릎을 꿇었다.

달러 정치화의 부메랑

무역 자금 결제는 대부분 달러 결제망(SWIFT)을 거친다. 미국은 이 결제망을 통제하면서 세계 경제의 규칙 제정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이 절대 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하면서,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는 이른바 탈달러 진영이 노골적으로 규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달러 무기화의 결정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미국이 주도한 서방 진영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외에 예치해 둔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외화보유액을 동결하고, 러시아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전격 퇴출했다. 이 사건은 기축통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중립성'을 짓밟은 자충수였다. 미국과 정치적 궤를 달리하는 독재 국가나 중립국들은 물론, 심지어 미국의 우방국들조차 달러를 믿고 쓸 수 없게 됐다.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탈달러화(De-dollarization)가 대두된 배경이다. 달러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이 바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맹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과 산유국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BRICS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진영으로 성장했다.[7]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역 대금의 90% 이상을 위안과 루블로 결제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UAE에서 석유를 수입하면서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피로 지불했다.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독점 구조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BRICS는 SWIFT를 우회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CBD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체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트로 달러 2.0 시스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찾은 달러 패권 연장 전략 중 하나는 페트로 달러 2.0 체제다. 이는 UAE 석유를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코인으로만 사게 하는 시스템이다. 페트로 달러 1.0과 다른 점은 파트너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UAE로, 결제 화폐가 종이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슬람 수니파의 각각 장남과 차남격 국가다. 이들은 탈석유 경제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세부 전략의 차이로 그동안 많은 갈등을 빚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를 합친 OPEC+의 감산을 통해 고유가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UAE는 증산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UAE는 1,500억 달러를 들여서 하루 300만 배럴 생산 능력을 600만 배럴로 늘려 놓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OPEC+가 감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생산 능력의 절반을 놀리는 상황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추진하는 RHQ(Regional Headquarters, 지역본부) 정책도 UAE와의 사이를 벌



아브라함 협정 조인식(2020년 9월 15일) ⓒ 위키피디아

렸다. 2021년 발표된 이 정책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UAE를 겨냥한 이 정책은 2024년 시행 이후 500개 이상의 기업이 본사를 UAE와 카타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겼다. 미국은 이런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UAE를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끌어들인 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이가 멀어진 틈을 타 당근을 던졌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수니파 이슬람 국가의 평화협정 체제로, 이란과 팔레스타인을 제압하려는 트럼프의 중동 외교 전략이다. 협정이 맺어진 후 이스라엘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자본, 미국 빅테크와 월가의 자본이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물밀듯이 흘러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2021년 아부다비에서 문을 열었다. UAE의 고품질 석유인 머반유를 거래하는 IFAD(ICE Futures Abu Dhabi, ICE 아부다비 선물거래소)다.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가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이 회사의 주인은 미국의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다. UAE의 심장부에서 석유를 사고 파는 거래소의 주인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전 세계 주요 거래소를 운영하는 ICE라는 사실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거래소의 설립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밀실 석유 가격 결정 시스템을 와해하려는 트럼프의 전략과 중동 석유 선물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월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인 2020년 봄 러시아와 감산 합의가 불발되자 반대로 무제한 증산으로 방향을 튼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가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UAE를 새로운 중동 파트너로 낙점했던 것이다. 2025년 트럼프 2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IFAD는 페트로 달러 2.0 구상의 핵심 지렛대로 부상했다. IFAD는 현재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니버설사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U가 UAE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격적으로 승인받았다. 이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전액 현금으로 UAE 국영 또는 상업은행에 수탁해야 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UAE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는 당근을 제시하고, 유니버설이 예치금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UAE 금융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 계약은 중동 전쟁 등 유사시 USDU 사용자들의 뱅크런 가능성을 줄인다. 미국이 달러 유동성을 사실상 무제한 공급하는 뒷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돈 달러 결제의 불편함과 비용 문제가 갈수록 부각되면, 결국 거래자들은 IFAD에서 USDU 결제로 모이게 되고 머반 석유 거래량만큼 미국 국채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컴퓨트 달러 시스템

페트로 달러 2.0과 함께 미국이 추진하는 달러 패권 연장 계획의 다른 핵심은 컴퓨트 달러(Compute Dollar) 체제다. AI와 반도체 등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Computing Power), 즉 연산력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거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제시한 컴퓨트 달러 체제는 AI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관련 독점력을 활용한 것이다. 컴퓨트 달러 체제가 겨냥하는 거래는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구입하는 1차 거래와 이 1차 거래를 통해 AI 서비스를 생산해 판매하는 2차 시장까지이다. 예컨대 UAE의 국영 AI 기업인 G42가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GPU) 칩을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후 공급하는 AI 서비스까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결제하도록 계약 당시부터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상무부는 현행법에 따라 AI 칩 거래 시 이런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을 강제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주도하는 자본 연합체 AI인프라파트너십(AIP)은 연산력을 석유나 금처럼 눈에 보이는 금융 상품으로 규격화하여 전 세계 달러 자금을 미국 국채 시장으로 흡수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완성했다. 이들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실시간 추적이 어려웠던 엔비디아 블랙웰(Blackwell) 등의 GPU 가동 시간과 AI 모델의 지적재산권(IP) 가치를 정량화하려고 이를 블록체인상에서 쪼개어 사고팔 수 있는 컴퓨팅 토큰(Compute Credit)이라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형태로 변환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연산 사용 권리를 언제든 양도와 거래가 가능한 실물 자산 토큰화(RWA, Real World Asset) 규격으로 표준화한 혁신적 시도다.

미국 의회가 지불형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를 확립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과시키자, 블랙록은 자사가 발행에 관여하거나 연방준비제도(FED)의 승인을 받은 제도권 적

> “컴퓨트 달러는 AI와 반도체 등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Computing Power), 즉 연산력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거래하는 시스템”

격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등)만을 이 연산력 토큰을 구매·정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축 통화로 묶어버렸다. AIP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통째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글로벌 연산력을 자신들의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 이 연합체는 블랙록과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GIP), 마이크로소프트(MS), UAE의 연산력 투자 전문 펀드인 MGX가 2024년 9월 최초 결성한 이후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의 xAI까지 전격 합류하면서 원자재와 인프라, 자본을 모두 틀어쥔 사상 최강의 카르텔로 진화했다. 이 카르텔의 자금 동원력은 1,000억 달러(약 150조 원)에 달한다.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AIP는 호주 맥쿼리 자산운용으로부터 총 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용량을 보유한 얼라인드 데이터센터(Aligned Data Centers)를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에 통째로 인수했다.[8]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거래이다. 이들은 얼라인드 데이터센터가 쥐고 있던 미국 버지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 지정학적 요충지의 초대형 GW급 AI 공장 인프라를 독점한다. 동시에 데이터센터 가동의 관건인 전력망을 선점하기 위해 대형 유틸리티 기업들과 차세대 전력 및 소형모듈원전(SMR) 연계 계약을 싹쓸이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어위브(CoreWeave) 등 자본집약적인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보유한 최첨단 엔비디아 블랙웰(Blackwell) GPU 자산 자체를 담보물로 설정하여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GPU 담보부 대출 및 리스 금융' 체계까지 완벽한 자산유동화증권(ABS) 형태로 장악해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의 최종 집행관으로 등판하는 것이 바로 미국 국방부이다. 국방부는 국외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최첨단 반도체의 생산 단계부터 개입해 하드웨어 상에 원격 킬스위치(Kill-switch)를 강제로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인프라가 미국의 승인 없이 중국계 우회 클라우드망으로 연산력을 할당하거나 달러 결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기계 자체를 원격으로 즉각 마비시킬 수 있다.

미국이 국채 수요를 만드는 법

미국은 국채를 끊임없이 팔아야 한다. 40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갚는 첫 번째 방법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다. 만약 국채를 추가로 팔지 못한다면 미국 재정은 결국 파탄에 이른다. 실제 달러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달러가 무기화되면서 중국 같은 최대 국채 수요처가 국채를 내다팔고 있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한때 1조2,000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지속해서 줄어 절반 수준이 됐다.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재무팀의 최우선 사명은 새로운 국채 수요처를 찾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추가 국채 수요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찾은 해답은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발행 액수만큼 미국 단기 국채를 사서 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니어스 법안이 2025년 7월 통과됐다.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미국 국채 수요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1대 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달러 대신 쓰이는 일종의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미 수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베센트 장관은 여러 공식 석상에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028년 2조

달러를 넘어서고 2030년이 되면 최대 3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시가총액의 10배 이상이 되리라는 추산이다. 스테이블코인 사용량 증가로 2030년까지 3조 달러 이상의 국채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팔기 위해 할 일은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페트로 달러 2.0과 컴퓨트 달러 구상이 바로 미국 정부가 생각해 낸 해법이다. UAE의 고품질 경질유인 머반유와 엔비디아 반도체 및 이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AI 서비스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을 늘리면, 국채 수요는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금 재평가와 비트코인 비축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부채 관리 정책은 금의 재평가와 이를 통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이다. 이런 구상은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면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법안은 현재 '준비금 현대화 법안'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발의된 상태다. 비트코인 법안에서는 원래 달러의 담보물로 법안 통과 후 5년간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100만 개를 비축하고, 20년간 팔지 않고 봉인해 두자는 내용이었다. 이는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는 취지였다. 세금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법으로 루미스 상원의원이 금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개념과 실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 재평가란 연준과 재무부의 회계처리를 통해 1~2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묘안이다. 간단히 말해 현재 연준 금고에 보관 중인 재무부 소유의 금 장부 가격을 법정 가격에서 시가로 바꾸고 그 차액만큼 연준이 달러를 찍어 재무부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금 소유 구조는 좀 복잡하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는 대공황 극복 정책인 뉴딜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의 금을 사실상 헐값에 강제로 사들였다.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금의 사적 소유가 금지됐었다. 당시 금을 사들이는 역할은 연준이 담당하고, 그 금을 100% 재무부 소유로 회계정리를 진행했다. 재무부는 온스당 22달러에 사들인 금을 37달러로 재평가해 그 차액인 총 28억 달러를 뉴딜정책의 마중물로 썼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무부가 연준에 준 금 증서 액면 가격을 재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재무부는 당시 사재기한 실물 금을 연준 금고에 보관하고 그 금에 대한 증서를 연준에 발행했다. 연준은 그만큼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ESF)이라는 특별 계좌에 이체해주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조치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1934년 통과된 '금 준비법'이다. 현재 연준 장부상 금 가격은 온스당 42.22 달러다. 이는 1973년 제정된 '금 가격 수정법' 상의 가격으로 그 사이 금 가격이 5,000 달러를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장부 가격은 42.22달러에 박제됐었다.[9] 이는 시장 가격이야 어찌 됐든 금 가격 상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4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의 이자를 갚고, 미래 재원 마련을 위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금 재평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재무부 소유의 금은 현재 8,133t으로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1조 2,000억 달러가 넘는다. 42.22 달러로 계산할 경우 현재 재무부 소유의 금 가치는 110억 달러에 불과해 재평가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조 달러가 넘는 셈이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법안에서 재평가된 금의 일부를 활용해 법 통과 후 5년간 20만 개씩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런 방식은 두 가지 이유로 민주당과 월가, 공화당 일부 의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일단 금 가치의 상향 재평가가 글로벌 시장에 달러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공인하는 자충수라는 게 반대 명분이다.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큰 비트코인을 달러의 신뢰를 뒷받침할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준비금 현대화 법안(이전 비트코인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플랜 B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안보자산으로 규정해 국방수권법(NDAA)이라는 큰 배에 태워 일괄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미국의 안보자산으로 격상될 경우, 이는 미국 국방부가 국방비를 투입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NDAA는 미국의 국방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준비금 현대화 법안 등 비트코인 관련 법안 발의 내용이 이 법안에 수정안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NDAA가 통과되면 수정안으로 끼워넣기 된 관련 법안들이 자동으로 덩달아 통과되는 것이다. 현재 펜타곤은 제이슨 로워리라는 우주군 소령이 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사이버 보안에 적합한 미국의 안

"트럼프 행정부는 4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의 이자를 갚고, 미래 재원 마련을 위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금 재평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선언"

보자산으로 규정한 상태다. 이어 국방부가 만든 관련 보고서가 현재 의회 국방위원회에 전달돼 의회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안보자산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로워리 소령은 비트코인의 생성 방식인 작업증명(PoW)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데 막대한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방어기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비트코인을 차세대 통신 안보 프로토콜로 정의했다.

결어: 기축통화 패권의 재편과 한국의 전략적 함의

달러 패권의 역사는 결국 어느 나라가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통제하느냐의 역사였다. 20세기 미국은 금을 대신하는 자리에 석유를 앉힘으로써 달러 패권을 유지했고, 21세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석유와 연산력(컴퓨팅 파워)이라는 두 축으로 그 패권을 연장하려 한다. 페트로 달러 2.0과 컴퓨트 달러 전략,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채 수요 창출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지만, 본질상으로는 달러 결제망을 확장해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려는 전통적인 패권 유지 전략의 디지털판이다. 금 재평가와 비트코인 비축 논의는 40조 달러에 육박하는 부채를 담보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최후의 수단이자, 신용 기반 달러 체제에서 담보 기반 체제로의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 모든 흐름의 공통 함의는 명확하다. 달러 패권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그 기반은 과거와 다른 복합적 구조 위에 서 있다. 바젤 III가 금을 복권시키고 중국·러시아가 금을 축적하는 동안 미국은 AI와 반도체라는 새로운 달러 담보물을 구축하고 있다. BRICS가 달러 대안을 모색하는 탈달러 진영을 이끌고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통상의 기본 언어가 되는 순간 탈달러화의 경로는 역설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 한국은 이 지각 변동 속에서 어느 한 축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기보다 에너지, AI 반도체, 디지털 금융 각 분야의 표준 형성 과정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독자적 입지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

1 Bloomberg. “The Untold Story Behind Saudi Arabia's 41-Year U.S. Debt Secret.” May 30, 2016.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16-05-30/the-untold-story-behind-saudi-arabia-s-41-year-u-s-debt-secret

2 https://www.iea.org/reports/oil-market-report-december-2024

3 World Gold Council. “Basel III and the Gold Market.” June 2021. https://www.gold.org/goldhub/gold-focus/2021/06/basel-iii-and-gold-market

4 Wikipedia. “1999-2002 Sale of British Gold Reserves.” https://en.wikipedia.org/wiki/1999%E2%80%932002_sale_of_British_gold_reserves

5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Interest Costs Just Surpassed Defense and Medicare.” May 10, 2024. https://www.crfb.org/blogs/interest-costs-just-surpassed-defense-and-medicare

6 World Gold Council. “Basel III and the Gold Market.” June 2021. https://www.gold.org/goldhub/gold-focus/2021/06/basel-iii-and-gold-market

7 IMF / Statista. “BRICS Plus and G7 share of world GDP in PPP.” April 202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412425/gdp-ppp-share-world-gdp-g7-brics/

8 BlackRock Press Release. September 17, 2024. https://ir.blackrock.com/news-and-events/press-releases/press-releases-details/2024/BlackRock-Global-Infrastructure-Partners-Microsoft-and-MGX-Launch-New-AI-Partnership

9 U.S. Treasury Fiscal Data. Status Report of U.S. Government Gold Reserve. https://fiscaldata.treasury.gov/datasets/status-report-government-gold-reserve/

아르메니아 총선 여파
러시아는 남캅카스에서 '패배'했는가?

임명묵 국제정치평론가

2026년 6월 7일 세계의 관심이 남캅카스의 소국 아르메니아 총선에 집중됐다. 이번 선거는 2018년 벨벳 혁명 이후 집권을 이어온 니콜 파시냔 총리 정부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가르는 선거였지만, 그 의미는 아르메니아 일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탈소 공간에서 친서방 세력과 친러 세력이 경쟁하는 지정학적 대결 성격도 띠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양측 지도자들이 벌인 공개 공방이 아르메니아 총선의 '국제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예레반을 방문해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버렸다"라며 파시냔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1]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파시냔 총리가 아르메니아를 우크라이나의 길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맞받아쳤다.[2] 이제 남캅카스도 러시아와 서방이 충돌하는 또 하나의 지정학적 단층선으로 부상한 것이다.



2018년 벨벳 혁명으로 집권한 뒤 2026년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 위키피디아

아르메니아 총선을 둘러싼 '러시아 패배론'

초미의 관심사였던 선거 결과는 파시냔 총리가 이끄는 시민계약당이 득표율 약 49.8%로 여당 지위를 사수하

> “총선 결과에 대한 주류적 해석은
> 친서방 여당 승리의 원인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당시
>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 보인 소극적 태도에서 찾아”

는 것으로 귀결됐다. 반면 친러 성향의 제1야당 ‘강한 아르메니아’와 로베르트 코차랸 전 대통령이 이끄는 제2야당 ‘아르메니아 연합’은 각각 약 23%와 9.8%를 득표하는 데 그치며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

파시냔의 승리를 둘러싼 반응 역시 이전 탈소 국가들의 선거에서 반복되어 온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은 친서방 세력의 승리를 환영했지만,[3] 러시아는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야권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과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개입 속에서 치러졌다”라고 비난했다.[4] 이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르메니아가 EU보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5] 이런 기조 속에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2003년 장미 혁명 이후 조지아를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 의존도를 지렛대로 삼아 무역 제한 등 압박에 나서리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여러 언론은 아르메니아 총선 결과를 곧바로 ‘러시아의 패배’로 해석했다.[6]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패배’한 것일까? 주류적인 설명은 그 원인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찾는다. 소련 해체 이후 30여 년간 분쟁이 이어졌던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2020년과 2023년 아제르바이잔이 승리하면서, 러시아는 자국이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인 아르메니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아르메니아 사회에서는 러시아에 배신당했다는 정서가 확산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화한 러시아의 쇠퇴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됐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대신 EU를 선택한 것은 안보와 경제를 위한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선거 결과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라는 눈에 띄는 사건, 그리고 서방 대 러시아라는 이분법적 구도만으로 이번 총선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단순한 시각만으로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단층선이 교차하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분쟁 지역이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지도 ⓒ 위키피디아

아르메니아와 남캅카스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유, 또 앞으로 러시아가 선택할 정책과 그 동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6월 아르메니아 총선에서 파시냔 정부가 거둔 승리가 유라시아 지정학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려면 아르메니아를 둘러싼 캅카스와 유라시아라는 더 큰 지역적 맥락을 함께 봐야만 한다.

벨벳 혁명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까지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은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사이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소련 해체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는 점이다. 독립 이후 오랫동안 아르메니아는 CSTO와 EAEU에 모두 가입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우방으로 평가됐다. 조지아가 장미 혁명 이후 친서방 노선으로 선회하고, 아제르바이잔이 튀르키예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안에도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남캅카스 국가였다. 이런 관계는 양국이 공유하는 기독교 문화라는 역사적 친연성뿐 아니라 러시아에 거주하는 대규모 아르메니아계 디아스포라, 긴밀한 경제적 연결, 그리고 제2의 도시인 귬리에 주둔한 러시아 제102군사기지가 제공하는 안보 보장으로 뒷받침됐다.

그러나 다른 탈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 정치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독립 이후 세대교체가 진행되자 소련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확산했고, 러시아와의 역사적 유대감도 점차 약화해 갔다. 이와 동시에 소련 시기부터 형성된 친러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발과 부패 척결, 유럽 통합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힘을 얻었다. 이런 흐름은 2018년 '구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르지 사르키샨 총리의 퇴진을 이끈 이른바 벨벳 혁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시민계약당의 니콜 파시냔이 집권하게 됐다.

문제는 아르메니아 역시 색깔 혁명 이후 탈소 국가에서 반복되어 온 정치적 불안정에서 벗



아르메니아 제2의 도시 귬리에 위치한 러시아 제102군사기지 ⓒ 위키피디아



2018년 벨벳 혁명 당시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 공화국 광장에 집결한 시위대 ⓒ 위키피디아

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여전했지만, 이를 대체할 발전 모델은 부재했다. 제한적인 정치 개혁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파시냔 1기 정부는 결국 "아르차흐는 아르메니아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민족주의 동원에 나섰다.[7] 이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을 격화시켰고, 급기야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한 아제르바이잔은 전쟁에서 아르메니아를 압도했고, 파시냔 정부는 패배의 굴욕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쟁을 계기로 남캅카스를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 경쟁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카라바흐 이후: 남캅카스 지정학의 재편

발단은 2020년 휴전으로 일단락됐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2023년 다시 점화된 데 있었다. 2020년 전쟁은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끝났지만, 여전히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남아 있던 아르메니아인 문제와 복잡한 행정·영토 문제가 미해결로 남으면서 양국의 갈등은 다시 격화했다. 결국 2023년 아제르바이잔군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역을 장악했고, 현지 아르메니아인들은 거의 모두 난민이 되어 아르메니아로 피난했다. 이로써 소련의 경계 획정 이후 1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카라바흐 문제'는 사실상 종결을 맞이했다.

> "2018년 벨벳 혁명 이후의 아르메니아 역시,
> 색깔 혁명 이후 탈소 국가에서 반복되어 온
> 정치적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 “아르메니아 본토가 아닌 국제법상 아제르바이잔 영토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 CSTO가 개입하는 것은 외교적·법적으로 막대한 부담”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는 전쟁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파시냔 정부에 비판적이고 친러 성향이 강한 아르메니아인들은 파시냔 정부가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한 결과, 아르메니아가 받을 수 있었던 안보 보장을 스스로 약화해 결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파시냔 총리는 러시아 책임론을 제기했다. 아르메니아가 CSTO 회원국임에도 러시아로부터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기에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상실하는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마침 2023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반러시아 정서가 고조되던 시기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발이 묶인 러시아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회의론도 빠르게 확산했다.

물론 러시아 역시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다. 러시아는 2020년 전쟁 이전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를 중재와 타협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군사적 충돌과 패배라는 결과를 피하려 했지만, 파시냔 정부가 민족주의적 수사를 통해 갈등을 격화시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인식했다.[8] 게다가 아르메니아 본토가 아니라 국제법상 아제르바이잔 영토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이뤄진 군사작전에 CSTO가 개입하는 것은 외교적·법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 상실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중 충격을 겪은 아르메니아 사회에서는 이런 복잡한 맥락보다는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더 단순한 서사가 더 큰 호응을 얻었다.



아제르바이잔의 공세를 피해 아르메니아로 피난을 가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민들 ⓒ 위키피디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제재로
>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기존의 무역로가 단절되면서,
> 남캅카스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져”

아르메니아 사회에서 ‘러시아에 버림받았다’라는 정서가 확산하는 사이에 남캅카스의 전략적 중요성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리며 갈수록 커졌다. 이는 대러 제재로 유럽과 러시아를 잇던 기존의 무역로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남캅카스가 새로운 병목이자 우회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제재를 받게 된 러시아는 고립을 피하고자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한 유라시아 육상 교역망에 더 의존하게 됐고, 특히 남캅카스를 거쳐 이란과 인도까지 연결되는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에 큰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러시아라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과의 연결이 끊기면서 유럽은 유라시아 내륙의 에너지 자원에 접근할 새로운 경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 특히 카스피해의 에너지를 남캅카스와 튀르키예를 거쳐 지중해와 발칸으로 수송하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더욱이 남캅카스의 가치는 단순히 물류와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상대방이 이 전략적 요충지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도 남캅카스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졌다. 러시아는 서방이 남캅카스를 통해 동서 축으로 유라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와 이란의 연계를 차단하려는 것을 경계했고, 반대로 서방은 러시아가 남북 축을 따라 인도양에 진출하고 유럽의 유라시아 내륙 접근을 제약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 결과 남캅카스는 러시아와 서방이 각자 전략적 연결을 견제하고자 서로 경쟁하는 새로운 단층선으로 떠올랐다.

잔게주르 회랑과 ‘트럼프 루트’의 도래

남캅카스를 둘러싼 영향력 경쟁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이후 새롭게 부상한 잔게주르 회랑 문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국의 월경지 나히체반을 본토와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개방을 오래전부터 요구하며 아르메니아를 지속해서 압박해 왔다.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상실한 상황에서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물류 통제권을 사실상 아제르바이잔에 넘겨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르메니아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더욱이 아르메니아 사회에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동서 양방향에서 자국을 포위하고 잠식하리라는 우려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결과 아르메니아는 전쟁 패배 이후에도 잔게주르 회랑 문제에서 사실상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양국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남캅카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서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잔게주르 회랑을 둘러싼 논의에도 조금씩 돌파구가 마련됐다. 물론 이런 변화는 아르메니아 내부의 반발을 상당 부분 억누르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는 서방과 아르메니아의 기존 관계를 고려하면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이기도 했다. 본래 미국과 프랑스에는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가 상당 규모로 존재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친아르메니아 정책을 유도하는 중요한 로비 세력이자 유권자 집

단으로 기능해 왔다. 그런 점에서 잔게주르 회랑 개방은 원칙적으로 이들 디아스포라가 가장 강하게 반대해야 했을 사안이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국력이 제한적인 아르메니아를 사실상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세력권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나히체반을 연결하는 잔게주르 회랑 (아르메니아 영토 내부의 연두색 선) ⓒ 위키피디아

그러나 러시아와의 전략 경쟁을 우선시한 서방은 아제르바이잔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는 한편, 유라시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튀르키예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런 구상 속에서 서방은 아르메니아가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중앙회랑(Middle Corridor)에 편입될 경우 새로운 물류망과 시장에 접근해 경제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아르메니아를 설득했다. 파시냔 역시 과거의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에서 한발 물러나, 튀르키예가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 질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현실주의적 노선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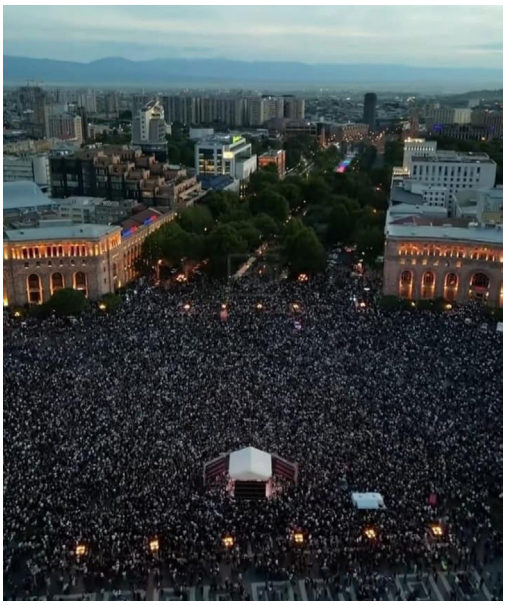
마침내 2025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니콜 파시냔 총리와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평화협정 문안의 가서명과 공동선언을 중재했고, 이를 계기로 잔게


2025년 8월 8일 백악관에서 3자 공동선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 위키피디아

> “야권의 공세에 맞서 파시냔 정부는
> 반정부 세력의 구심점이 된 사도교회를 압박하고,
> 야권을 겨냥한 강경한 사정 정국에 나서”

주르 회랑 문제도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TRIPP)’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공식화됐다. 협정은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에 대해 품고 있던 안보 우려를 미국의 참여를 통해 완화하는 대신, 미국이 회랑 운영에 참여해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내용을 담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10] 당연히 이처럼 민감한 전략 공간에 미국이 직접 진출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루트’ 협정에 러시아는 조심스레 우려를 표했고, 중동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이란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기까지 했다.[11]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에 종속되리라는 우려와 미국의 남캅카스 진출에 대한 반감은 2025년 6월 파시냔 정부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사이의 정치적 충돌로 이어졌다. 민족주의 성향의 야권과 친러 세력은 파시냔 정부가 사실상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12] 야권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 파시냔 정부는 강경한 사정 정국으로 맞섰다. 이번 정치 위기의 중심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24년 사도교회가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정부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수장인 가레긴 2세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수준의 압박을 교회에 가하기 시작했다. 이어 일부 주교를 비롯한 이른바 ‘쿠데타 세력’이 정부 전복을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수사와 체포에 착수했다. 이런 사태는 아르메니아 여권에서는 ‘러시아가 후원한 쿠데타 음모’를 저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 반면,[13]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사도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사례로 묘사됐다.[14] 2025년 6월의 정치적 충돌이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더 격화될 정치 투쟁의 신호탄이 된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의 반발과 거리 시위도 이어지면서 아르메니아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더 깊어졌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획정에 항의하기 위해 예레반에 집결한 시위대 ⓒ 위키피디아

파시냔의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나?

하지만 이런 반발과 여권 지지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총선은 파시냔 정부의 재집권으로 막을 내렸다. 파시냔 총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째, 여권의 정치적 매력은 이전보다 더 약화했지만, 야권

> “6월 총선에서 파시냔 총리가 승리한 배경에는 야권의 분열과 대안적 지도력의 부재가 있어”

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 약세에 직면해 있었다. 야권은 끝내 ‘강한 아르메니아’와 ‘아르메니아 연합’으로 갈라진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고, 파시냔 정부에 맞설 새로운 지도력과 국가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에 러시아와 가까운 재벌 출신 인사들이 야권의 전면에 나선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야권 캠페인은 러시아와 심리적 거리를 점차 두기 시작한 젊은 유권자들, 혹은 러시아 연계 기득권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정학과 ‘서사 경쟁’에서 러시아가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CSTO가 아르메니아를 버렸다는 인식은 여전히 아르메니아 사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마저 장기화하면서, 친서방 아르메니아 유권자, 특히 청년층에게 러시아는 ‘미래 비전을 대표하는 국가’가 아니라 ‘아르메니아를 향한 장기적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빠진 빈자리를 채운 것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였다. 이들은 미디어와 자본, 정치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아르메니아 국내 정치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고, 러시아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데 성공했다. 선거 이후 크렘린이 서방의 선거 개입을 거듭 비난한 것 역시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유라시아 지정학의 새로운 요충지로 떠오른 아르메니아에서 친서방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정말 러시아의 패배와 아르메니아의 ‘유럽행’, 나아가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인가? 실제로 남캅카스에서 친서방 정부가 등장한 뒤 러시아가 경제적 압박에 나선 전례도 존재한다. 2006년에도 러시아는 조지아의 친서방 성향 사카슈빌리 정부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보르조미 생수 수입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압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모스크바와 예레반의 ‘딜레마’

그러나 이번 아르메니아 사례도 사태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6년 조지아 문제와 2026년 아르메니아 문제는 시대도, 맥락도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서방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는 여전히 최대 2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본국 인구가 약 3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여전히 엄청난 숫자이다. 인적 연계에 힘입어 양국의 경제적 교류 역시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호의존은 파시냔 정부가 러시아를 정면으로 자극하는 정책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한다.

둘째,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를 압박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르메니아가 이미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과의 연결을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시장을 봉쇄할 경우, 오히려 유럽과 튀르키예가 아르메니아 상품을 흡수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15] 더욱이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강

하게 압박한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에도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당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남쪽의 튀르키예와 정면으로 충돌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제약도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강경책만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예레반과 모스크바 모두 겉으로는 강경한 수사를 주고받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더 현실적인 협상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갈등을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르메니아를 둘러싼 긴장이 단순한 메시지 차원에 그치리라는 뜻은 아니다. 남캅카스는 유럽과 러시아의 경쟁이 벌어지는 무대이지만, 동시에 중동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중요한 요충지를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맞게 재편하려는 여러 국가의 경쟁은 물밑에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르메니아 국내 혹은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에 따라,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25년 6월 이래 야권을 강하게 압박해 온 파시냔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친러 야권을 제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 역시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배신한 결과 남캅카스에서 쫓겨났다'라는 외부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무역·물류·에너지를 통한 경제적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장기전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파시냔 정부가 친서방 행보를 노골화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정국 위기에 처할 때 역사·종교·경제를 통해 연결된 아르메니아 내부의 친러 세력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어쩌면 남캅카스에서 러시아의 현실적 목표는 이 지역에서 튀르키예의 영향력을 부분적으



2025년 5월 9일 전승절을 맞아 모스크바에서 만난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위키피디아

로 인정하면서도, 강경한 반러·친서방 정권이 등장하는 것만큼은 억제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2024년 이후 일종의 '관리된 중립' 상태로 이행한 러시아·조지아 관계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조지아는 2008년에 러시아와 전쟁까지도 치른 국가고, 트빌리시 중앙 정부와 압하지야·남오세티야의 분리주의 공화국과의 관계도 해결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하지만 조지아는 강경한 민족주의와 친서방 지향을 점차 접으며 서방과 비서방을 가리지 않는 실용적 관계를 기본 노선으로 삼기 시작했다.[16]

물론 이 모든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아르메니아를 둘러싼 여러 인접국의 이해관계, 유라시아 지정학에서 이 나라가 갑작스럽게 차지하게 된 높은 위상, 그리고 여전히 분열된 국내 정치가 모두 개입하는 아르메니아 정치의 복잡성이다. 그러므로 어떤 전략과 분석이 세워지더라도 이 지역의 정세는 어느 한 행위자의 의도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미시적 현실과 거시적 지정학 변화가 중첩되는 아르메니아와 남캅카스의 향방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1 Macron backs Armenia's pro-Europe PM as re-election campaign draws to clo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may/05/macron-backs-armenia-pro-europe-pm-nikol-pashinyan-re-election?CMP=share_btn_url

2 "Пашинян толкает Армению на курс Украины, заявил Медведев." https://ria.ru/20260525/pashinjan-2094526308.html

3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Congratulates Pashinyan on Election Victory." https://arka.am/en/news/politics/european-commission-president-congratulates-pashinyan-on-election-victory/

4 "Russia claims Armenia election held under opposition pressure, Western interference." https://www.aa.com.tr/en/eurasia/russia-claims-armenia-election-held-under-opposition-pressure-western-interference/3960387

5 "'친서방' 아르메니아 붙잡는 러…"EU 대신 EAEU 선택하길"."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4175300108

6 "'러시아 앞마당' 아르메니아, 이번에도 친서방 정당 선택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5197

7 "Pashinyan calls for unification between Armenia and Karabakh." 아르차흐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일컫는 아르메니아식 표현이다. https://eurasianet.org/pashinyan-calls-for-unification-between-armenia-and-karabakh

8 "Путин признался, что не понял отказа Пашиняна от условия возвращения беженцев в Шушу." https://tass.ru/politika/10028873

9 "Prime Minister Nikol Pashinyan's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discus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Action Plan (2021-26) for the year of 2023" https://www.primeminister.am/en/statements-and-messages/item/2024/04/10/Nikol-Pashinyan-Speech/

10 2026년 5월에 TRIPP 기본 협정이 체결되며 미국 측 지분은 74%로 확정되었다. "미국·아르메니아 전략 파트너십 체결…TRIPP 본격화와 러시아 의존 탈피 가속"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mid=a10200000000&systemcode=04&brdctsNo=397328

11 "Iran rejects planned transit corridor outlined in Armenia-Azerbaijan pact." https://aje.io/0guzwr

12 "Пашинян может передать Зангезурский коридор США, считает эксперт." https://ria.ru/20250807/pashinjan-2034027510.html

13 "The Archbishops' 'Coup' — Armenia Hints at Russian Plot." https://cepa.org/article/the-archbishops-coup-armenia-hints-at-russian-plot/

14 "«Его цель — остаться у власти» Почему Пашинян преследует церковь и как поли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повлияет на отношения Армении и России?" https://lenta.ru/articles/2025/07/09/arm-polit/

15 "Will Russia–Armenia Relations Improve Following Pashinyan's Re-Election?"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6/06/russia-armenia-post-election

16 "Эксперт МГИМО описал оптимальный курс России на Южном Кавказе." https://www.rbc.ru/politics/30/06/2025/686159fd9a79479516ba0c08

노영남 LG전자 지역 총괄 대표
문화로 러시아와 소통을 잇다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중국의 기업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 중이다.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국가의 주요 기업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거나, 남았어도 최소한의 활동에 멈춰 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의료, 식음료,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국 상품 거래가 활발하지만, 자동차와 기계, 전자·가전제품 등 비중이 큰 분야는 우리가 확보하던 시장 대부분을 중국 브랜드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말았다. 양국 간 교역은 저점에서 이렇다 할 만한 변화의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1998년 금융위기 때 러시아에서 철수한 일본 기업이 훗날 시장에 재진입하면서 겪은 큰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우리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를 떠나지 않겠다는 자세로 고군분투 중이다. 러시아 시장을 싹쓸이한 중국 기업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기존의 호감과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이어가고 있다.

6월호 「RIO 초대석」에서는 지난 5년 동안 LG전자 러시아·CIS 지역 총괄로 근무한 노영남 대표를 만나본다. 중국 기업이 최근 러시아에서 구사하는 복합적 마케팅 전략, 우리 기업 앞에 서 있는 장벽을 넘기 위한 LG전자의 다양한 소통 노력, 양국 관계 돌파구 개척에 필요한 기업과 민간 차원의 실천 과제 등에 관한 솔직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 바쁜 일상 중에 틈틈이 적어 둔 시들을 모아 출간한 책으로 지난 5월 러시아의 '하이퍼텍스트' 문학상을 받은 기업인과 인터뷰하는 중간중간 오랫동안 근무한 나라를 향한 진지한 관심과 사랑이 돋보였다.



RIO Institute에서 만난 노영남 LG전자 러시아·CIS 지역 총괄 대표 ⓒ RIO

총괄 대표직을 맡기 전 러시아에 근무한 적이 있나?

러시아에는 1996년 처음 갔고, 2002년 두 번째 발령을 받았다. 두 번째 근무할 때는 모스크바 인근 루자 지역의 현지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 임무를 책임졌다. 2010년 러시아를 떠나 유럽과 인도 등에서 근무한 다음 본사에서 가전 분야 글로벌 부문을 담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점에 모스크바에 법인장으로 부임해서 5년 동안 지역 총괄 대표 자격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LG전자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후 한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주요 기업 다수가 아예 철수하거나 수동적 자세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LG전자는 어떤 입장을 취했나?

회사 생활 35년 중 절반을 러시아에서 보냈다.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때 일본 회사들이 대거 철수했다가, 나중에 재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러시아가 어려울 때 발을 빼면 다시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LG전자는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워도 러시아에 남아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철수는 고려하지 않았고, 지

> “러시아가 어려울 때 발을 빼면 다시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LG전자는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워도 러시아에 남아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금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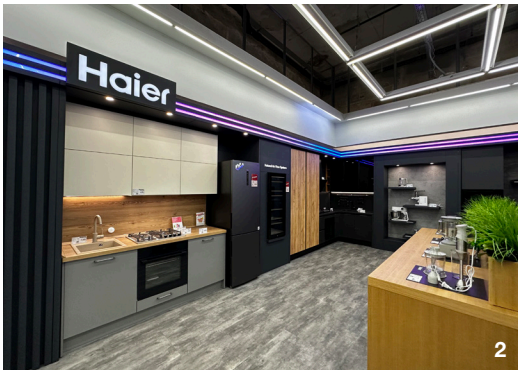
과거 서구권 기업들이 주도하던 러시아 시장은 고스란히 중국이 물려받았다. 중국의 전방위적, 압도적 진출을 러시아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A 브랜드'로 일컫는 고급 상품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소비자들이 긴가민가하며 중국 상품을 사던 단계를 지나 현재는 사용해 보니 그런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에 왔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20%까지 올라가자, 러시아 가전 유통업체들은 빌린 자금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2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비즈니스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한국 상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모스크바에 남아 있지만, 서비스는 중단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유사한 정부 기관들이 앞장서서 신용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유럽 브랜드가 러시아를 떠나자, 프리미엄 가전제품 거래의 대표주자였던 러시아 회사 M-VIDEO 매장은 텅 비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중국의 HAIER, HISENSE, TCL 등이다. 이 중국 기업들은 신용거래를 트고, 매장 가득 상품을 채워주고, 심지어 디스플레이 비용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물론 중국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은 급상승했다.

지금까지는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괜찮은 편인데, 조금 더 지나 4, 5년 정도 제품을 써보고 내구성에 대한 평판이 굳어지면 승부가 판가름이 날 거다. 오래 사용해 보니 역시 이전의 한국과 유럽의 'A 브랜드'와 차이가 난다고 소비자들이 판단하면 LG전자에 기회가 생길 텐데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 현재는 중국산 대형 디스플레이에 불량이 나면 수리 대신 물건을 통째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증 수리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된 건 아니어서, 그나마 한국 기업이 파고들어 갈 틈새는 약간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저가 제품 시장을 장악한 중국 브랜드들이 고가 상품 시장을 넘보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낙관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HAIER의 프리미엄 브랜드 CASARTE는 얼마 전 롯데호텔 옆 고급 몰에 단독 전시장을 개설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향후 중국 가전 브랜드들은 제품의 고급화, 프리미엄 브랜드를 활용한 이미지 제고, 현지 생산 가속화, 서비스 역량 강화, 문화·예술 마케팅 전략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종료 이후 한국과 일본,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러시아 진입을 선제적으로 막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1



2

1 중국 기업 HAIER가 모스크바 롯데호텔 옆 백화점에 개설한 고급 브랜드 전시장 ⓒ 노영남
2 HAIER의 주방 가전 전시장 ⓒ 노영남



인터뷰 중인 노영남 총괄 대표 ⓒ RIO

가전 분야에서 한때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사랑받던 LG의 현재 위상은……

LG와 삼성 등 한국 브랜드는 러시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항상 남아 있다. 이 한국 회사 제품을 사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대안 제품을 구매하는 거다. 중국 회사들은 'A 브랜드'가 사라진 여건을 최대한 누리려고 자사 제품들의 가격을 과거 프리미엄 제품 수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다가 LG가 다시 들어오면 저가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일 거다. 따라서 향후 3~4년이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이전 경쟁력을 탈환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전쟁이 끝날 경우,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 전자제품 등이 러시아 시장에서 이전의 인기를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 여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러시아가 어려울 때 떠난 외국 기업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러시아에 복귀하는 걸 무턱대고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라 해도 외국 기업과 제품의 러시아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부품이나 생산 자재의 조달, 또는 완제품의 구매 과정에서 러시아 기업이 일정 지분 참여하는 형태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국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러시아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외국 기업들을 몇 개 범주로 분류해서 러시아를 도왔던 기업과 단기적 이익을 쫓아 러시아를 적대시하거나 떠나버린 기업들을 각기 다르게 대우할 공산이 크다.

잘 버티던 러시아 경제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가전 분야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떤가?

4월호 「RIO 초대석」 인터뷰 기사에서, 러시아 외식업 체인 대표가 중간 가격대 시장은 사라지고 외식 시장이 고가와 저가로 양극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한 내용을 읽었다. 가전제품 분야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여유 있는 소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하는 반면, 형편이 넉

"러시아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외국 기업들을 몇 개 범주로 분류해서 러시아를 도왔던 기업과
단기적 이익을 쫓아 러시아를 적대시하거나 떠나버린 기업들을
각기 다르게 대우할 공산이 커"

넉지 않은 사람은 단돈 100루블이라도 싸게 파는 곳이 있으면 찾아간다. 외상 구매나 할부금융 같은 프로모션도 높은 금리 때문에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 일부를 소비 진작 프로그램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현재로서는 LG전자와 여타 외국 기업은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고, 중국 기업들이 고가와 저가 상품 시장 양쪽을 손쉽게 공략하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러시아 시장에서 약진하던 한국 기업처럼 현재 중국 기업들이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돈을 쏟아부어 고급 이미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경쟁이 심한 선진국 시장과 달리 러시아 시장의 절대 지분을 거저 손에 쥔 상태여서 중국 기업이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대형 화면에 삼성전자 광고가 나오는 걸 봤다.

회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위탁 광고다. 상품 판매 목적보다 신제품 출시에 즈음한 이미지 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세히 보면 광고 아래에 'Sponsored by M-VIDEO', 'Sponsored by DNS' 같은 문구가 들어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러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현지에 있던 기업인 입장에서 우리 정부 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우리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현장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하는 걸로 대신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움직이는 데 가장 필요한 건 금융 지원이다. 여러 사정으로 우리 K-SURE는 활동을 중지했다. 그런데 러시아 현지 업체들이 중국 회사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데 왜 한국 회사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느냐고 따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뚝딱 풀릴 문제가 아닌 건 알고 있지만, 현지에서 우리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한계점이다. 우리 한국의 대러 제재 품목 목



일부 러시아 매장에 전시된 LG 가전제품 ⓒ 노영남

록이 미국이 제시한 목록보다 더 길어진 적도 있는데, 이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관련 제재 내용도 미국보다 우리가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정 배기량 이상의 자동차, 필터, 심지어는 파이프 등의 경우도 군수용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괄 제재를 부과했는데, 나중에 우리 정부 당국으로부터 상업용 허가를 받아 러시아에 수출한 사례가 있다. 경제 분야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첫 단계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러 제재 대상 품목 목록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외형상 러시아와 거래를 중단한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기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완성 제품이 아닌 부품과 자재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한국은 경제 협력 파트너로 중요한 나라인가?

넓게 보면 러시아에 한국은 중요한 나라다. 여러 러시아 인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러·중 관계가 밀착할수록 러시아가 중국 경제에 너무 예속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유럽이 그 대안이 되기에는 러시아에 너무 적대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역사에 더해 영토 문제가 걸려 있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나라다. 대체로 한국은 러시아에 괜찮은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이룬 한국의 높은 성취, 러시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탄탄한 토대다. 대러 제재에 참여한 러시아의 '비우호국' 중 한국은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 협력 측면에서 우리에게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1억 5천만 인구의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의 평판도가 아주 높고, 한국인과 문화를 대하는 시선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믿을 수 있는 제품, 호감이 가는 사람들, 작은 땅에서 이룬 기적 같은 경제 발전, 젊은 층을 파고든 한류 열풍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우리는 수교 이후 러시아와 교류하며 축적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최근 주목받는 북극항로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 여부에 따라 한국의 미래 개척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이 항로를 이용한 물류 루트의 거점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 있고, 유럽으로 가는 우리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쇄빙선과 대형 유조선 건조 등에서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이 언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자원·에너지 수출국으로, 혹은 한국 상품의 수출 시장으로만 보던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콘텐츠 등을 포함한 창조 산업 분야, 기술 분야 협력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과 실현에 나서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유럽이 그 대안이 되기에는 러시아에 너무 적대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역사에 더해 영토 문제가 걸려 있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나라다. 대체로 한국은 러시아에
괜찮은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한·러 경제 협력은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협력은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까?



인터뷰 중인 노영남 총괄 대표 ⓒ RIO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는 러시아에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중국이 물밀듯 진출하면서 자칫 이 지역이 중국화하는 건 아닌지 러시아는 우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할 틈새가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출발 기점이어서 향후 부품 산업 중심의 한국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같은 과거의 구상을 현시점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지화를 통한 민간 산업의 활성화를 러시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에, 한국이 이 지역 산업 발전과 시장 확장에 참여하면 러시아가 호감을 느낄 것이다. 슈퍼마켓의 식료품이나 과자 매대에 한글 표기가 들어 있는 상품이 보이면 러시아 소비자의 손이 절로 그쪽으로 갈 정도로 한국 상품의 인기가 높은 게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9월에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의료, 식품, 화장품 분야 등 상품 전시회를 개최해 보면 어떨까 싶다. 일반 한국인들에게 러시아 소비재가 익숙한 상태는 아니어도, 나름 경쟁력을 갖춘 러시아 상품이 한국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확장하는 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극동 지역 개발과 현대화에 이 지역 출신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흥미로운 사례도 있다. 전국 규모의 가전 유통 기업 DNS 창업자 드미트리 알렉세예프가 거액을 투자해서 극동의 관문 도시에 선진국형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가 하면, 청년 세대를 위한 로봇 경진 대회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지역 젊은이들이 신기술 분야에 도전해서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극동과 시베리아에서 일고 있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우리도 커다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들을 제안하고, 성공 사례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세대 러시아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1996년 러시아에 처음 갔을 때 만난 젊은 사업가들이 지금은 구세대가 됐다. 잃을 게 없었으니 초창기 사람들은 저돌적이었고 심지어는 투기적 기질도 강했다. 우리 전자상가에 해당하는 모스크바 가르부쉬카 시장에서 컨테이너 판매장을 운영하며 현금 장사를 하던 이들이 성장해서 오늘의 M-VIDEO, ELDORADO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를 일궜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인터넷, 정보기술(IT), 모바일 등을 활용한 독창적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탁월하고 아주 진취적이다. 이들의 창의력과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놀라울 정도다. 예를 들어, 중국 자동차 회사가 현

> “현재 러시아가 처한 여건 때문에 이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할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이런 경험을 쌓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올 것”

재 운영 중인 플랫폼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면, 기막힌 아이디어와 창의적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져 나온다. 현재 러시아가 처한 여건 때문에 이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할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이런 경험을 쌓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올 것이다. 어디서나 그렇듯 러시아의 Z세대들도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재택 근무해도 되고,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굳이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탁월한 인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LG전자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슨 목표를 세웠나?

어떤 경우든 러시아에 남아 활동하며 러시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진정성을 갖고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 세 분야로 활동 방향을 설정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모스크바의 푸시킨 조형미술 박물관과 진행한 협업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서유럽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유명한 박물관이다. 고흐 작품 「아를의 붉은 포도밭」 복원 작업을 진행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닥쳐서 정부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LG전자가 지원에 나섰다. 이 박물관을 드나들면서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군이 손에 넣게 된 라파엘로의 유명한 그림 「시스티나의 성모상」을 바로 이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1955년 다른 그림들과 함께 드레스덴 박물관으로 돌려줬다는 역사도 알게 됐다. 도스토옙스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이라고 극찬했던 이 그림의 사진은 작





1 LG전자가 복원 사업을 지원한 고흐의 「아를의 붉은 포도밭」 ⓒ 위키피디아
2 2024년 러시아 문화계·학계 인사와 LG전자 러시아 거래선을 함께 초청해서 개최한 푸시킨 박물관 문화 행사 ⓒ 노영남

가가 거주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에 걸려 있는 걸 직접 본 기억도 있다.

복원 작업 지원을 결정한 계기는 이 박물관이 세계 수준의 미술 복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그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흐 원작의 복원 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한 다음 큐레이터가 이 내용을 박물관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까지 구상함으로써 협업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가 돈만 벌어서 러시아를 떠나는 기업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삶과 문화 속에 함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 밖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박물관(루스키 무제이)에도 작품 소개나 박물관 안내를 위한 디스플레이 장비를 지원했고, 마린스키 극장에도 입장권 판매소의 효율적 운영과 공연장 안내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시설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만난 극장의 예술감독이자 세계적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한테 그가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한국의 유명 연주자들과 개인적 인연을 맺었고, 또 한국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직접 들었다.



마린스키 극장 집무실에서 만난 발레리 게르기예프 ⓒ 노영남

Z세대와의 소통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인생은 즐겁다(Life is Good)'는 LG가 추구하는 기업 정신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러시아 대학을 찾아가, 종합 가전 분야 글로벌 대표주자로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사회적 관심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학 측의 사전 허락을 받아 진행하는 일종의 특강 프로그램인데, 제품 관련 홍보는 모두 빼고, 최근의 기술 추세, LG가 추구하는 차별성, 친환경적 기업문화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작은 포장재 하나에 들어 있는 독성까지 제거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기울이는 섬세한 노력 등에 관한 얘기를 듣는 학생들의 태도는 진지했다. 사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떠나면서 한국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셈이다. 삼성전자는 노트북과 모니터를 갖춘 IT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분야의 러시아 젊은 세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 "작은 포장재 하나에 들어 있는 독성까지 제거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기울이는 섬세한 노력 등에 관한 얘기를 듣는 학생들의 태도는 진지해"



러시아 젊은 세대와 만나는 LG전자 행사 ⓒ 노영남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열린 헌혈 행사 ⓒ 노영남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겪으면서 LG전자가 CSR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분야가 있다면?

2009년부터 16년째 러시아에서 헌혈 운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LG가 유일하다. 과거에는 헌혈하는 직원들 뒤에 서서 사진만 찍었는데 어느 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헌혈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진에 나는 얼굴만 들어간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아홉 번 피를 뽑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외국인 최초로 러시아제 백

> “16년째 러시아에서 헌혈 운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LG가 유일”

신 스푸트니크를 맞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고 2022년부터 헌혈 운동이 러시아의 국가적 행사가 됐다. 해오던 활동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LG는 계속 참여했고, 헌혈 활동을 결산하는 연말 행사장에 나가서 LG의 그간 활동을 소개하고, 자작시 「기다림」을 낭송한 적도 있다. 지금은 러시아에서 상품을 파는 일보다는 이렇게 그들과 함께해야 할 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 중 글쓰기를 계속했고, 2025년 EKSMO 출판사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라는 한·러 대역판 시집을 냈다. 시를 쓰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나?

30대 때 처음 러시아 주재원으로 나와서 작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소련 해체 후 혼란을 겪던 러시아는 1996년 무렵 가난한 나라였고, 한국은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한 부자 나라였다. 회사 상호가 금성사(Goldstar)이던 시절 얘기다. 하루는 회사 차를 운전하는 러시아 기사가 당신 정도면 한국에서 엘리트인데 허구한 날 저녁이면 음식점과 노래방을 찾고 왜 공연장 같은 데는 안 가느냐고 물었다. 기사한테 박물관이나 공연장에 가는지 물으니 그렇다는 거였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2021년에는 북캅카스에 있는 다게스탄의 수도 마하치칼라로 거래선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웅장하고 험준한 산들이 끝없이 이어진 산악 지역에 있는 공화국인데, 아주 절제된 이슬람식 삶을 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곳에 가기 전에는 어깨가 떡 벌어진 UFC 격투기 선수들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일정을 마치고 떠날 때 거래선 사람이 내게 시집 한 권을 선물했다. 한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멜로디를 읊조리던 노래 「백학(주라블리)」의 작사가 라술 감자토프의 시집이었다. 러시아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사람들의 삶에 문학이 스며 있고, 또 자신들의 시인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실감했다. 그 후부터 나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느낌이 꿈틀거리면 글로 적었다가 지우곤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소박하고 부끄러운 글이지만, 솔직한 마음을 담은 시집이 나온 다음부터 러시아 사람들은 LG전자 현지법인 총괄 대표 명함보다는 함께 내민 내 시집에 더 주목했다. 내가 문구를 직접 쓰고 그 아래 서명해서 책을 선물하면 상대방이 더욱 감동한다는 사실도 나중에는 알게 됐다.



2026년 '하이퍼텍스트' 문학상을 받은 시집 ⓒ 노영남

> "LG전자 현지법인 총괄 대표 명함보다는 함께 내민 내 시집에 더 주목"



눈 덮인 캅카스산맥을 배경으로 북오세티야 '심드' 춤을 추는 모습. 여성의 절제된 움직임과 남성의 활달한 동작이 결합한 민속 무용이다. ⓒ 노영남



캅카스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는 의자. 뒷면에는 "행복은 산 너머가 아닌 산속에 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 노영남

출장 중 러시아의 여러 곳을 방문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딘가?

러시아에는 경이로운 자연경관이 무수하다. 캄차카, 바이칼, 알타이 등등…… 그중 하나를 손꼽으라면 북캅카스다. 끝없는 평지가 펼쳐진 러시아 남부를 지나 어딘가로 가면 해발 수천 미터의 고산준령이 즐비한 산악지대가 눈앞에 떡 나타난다. 고지대에 오르면, 발밑 저 아래로 독수리가 유유히 날고 있다. 높은 봉우리들이 전부가 아니다. 어떤 곳은 넓게 고원지대가 펼쳐지는 진기한 풍경을 연출한다. 호연지기가 절로 느껴진다. 우리 젊은이들이 편안하고 재밌는 선진국 여행지들만 찾지 말고 이런 장엄한 자연과 만나면서 큰 포부와 자신감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지난 5월 러시아 '하이퍼텍스트 문학상'의 '루스키 미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어떤 문학상이고, 이번 수상이 본인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문학상인데, 러시아 대통령 기금의 지원을 받아 《문학신문(리테라투르나야 가제타)》이 주관하고 있다. 소련 시대에는 상당히 비중 있는 매체였고, 1989년에는 발행부수가 650만 부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신문이었다고 한다. 알고 지내던 편집장 막심 잠셰프가 외국 문인들이 참가하는 '루스키 미르' 부문이 새로 생겼으니 도전해보라고 했다. 소나무를 소재로 한 표지 디자인은 아내가 작업했고, 꽤 이름 있는 현지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이번에 '루스키 미르' 부문 참가 도서가 꽤 많았다고 하던데, 한국의 기업인이 회사 제품이 아닌 러시아에 관한 자신의 글로 러시아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26 ноября – 2 декабря 2025 № 47 (7011) www.lgz.ru

8 КУЛЬТУРА

ИНТЕРВЬЮ

Имя, ставшее судьбой

Как Юрий Гагарин и Расул Гамзатов превратили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мена в поэта

На днях в редакцию «ЛГ» побывал необычный гость – президент LG Electronics в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СНГ ЕнгНам Ро (YoungNam Roh). Казалось бы, что общего у этой глоба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и и старейшего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ого еженедельника России, кроме разве что аббревиатуры? Что ж,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интерес к культуре. Ещё в юности ЕнгНам Ро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а впервые оказавшись в России, был настолько очарован нашей страной, что взял себе русское имя Юрий – в честь Гагарина. Сегодня он по праву может считать себя «корейским экспертом по России» – и продолжает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 нынешних непростых реалиях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язи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Одной из таких связующих нитей стала его билингвальная книга стихотворений «Размышления о жизни», вышедшая в издательстве «Эксмо». Мы побеседовали с ЕнгНам Ро о сходствах между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ами, его пути к поэзии и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технологий.

– Господин Ро, вы много лет занимаетесь бизнесом, работаете в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мпаний. Бытует стереотип, что бизнес и поэзия – вещи несовместимые. Почему вы так увлеклись поэзией? Как это произошло? И когда вы начали писать?

– В Корее, как и в России, литература преподаётся как

и погрузился в бизнес – я был невероятно занят.

Следующим фактором стали мои визиты в Россию: они очень на меня повлияли! Сейчас я в России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А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 сюда в 90-е, когда ваша страна находилась как бы между двумя идеологиями – коммунизмом и капитализмом. Хотя мой первый визит был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посвящён работе

мы часто видим процессы, полностью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Как нам преодолеть расцветающую «культуру отмены»?

– Это философский вопрос. Могу рассказать о том, что делает для этого LG.

Во-первых, на мой взгляд,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культурные события, связанные с литературой или другими видами искусства, продолжают объединять

ФАКТ

Сборник поэтических притч «Размышления о жизни» ЕнгНам Ро (YoungNam Roh), президента LG Electronics в России/СНГ, награждён премией «Лучшая корпоративная книга»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 «Лучшая авторская книга от создателя (CEO) бизнеса» и «Лучшая книга зарубежного CEO».

И конечно,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развитии и продвижени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едставляя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на крупней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ыставках – IFA в Берлине и CES в Лас-Вегасе, мы специально готовим лекции и онлайн-сесси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партнёр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и, чтобы абсолютно все люди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объединёнными. После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многие зарубежные компании ушли с российского рынка и в том числе свернули сво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молодёжи в вузах. Но LG, наоборот, составила огромн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почти 60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ластеров. Мы приглашаем студентов в офис, рассказываем им о профессии коммуникатора, а студенты техниче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сещают нашу Академию кодинициировани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мы провели более 260 встреч, лекций, тренингов. Мы также очень рады, что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инявшие участие в наших социальных и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приходят и на Дни

《문학신문》 인터뷰 기사 ⓒ RIO

> “하나의 과제를 바라보는 러시아 젊은이들의 태도가 다양하고 개성이 뚜렷한 것도 인상적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러시아 직원들은 취미 생활과 노는 데도 진심”

모스크바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젊은 세대 직원들의 업무 능력과 일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가?

문화와 전통은 달라도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 서로 많이 닮았다.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활용 같은 공통의 역량이 국경을 초월해서 강조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도 서로 다른 교육 제도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라서 차이점도 있다. 어릴 때부터 학업을 유난히 강조하는 틀 속에서 성장한 우리 젊은이들과 비교할 때 러시아 아이들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업을 중요시하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해도, 러시아 젊은이들은 넓은 땅의 오지를 찾아 캠핑을 즐기고, 특히 스포츠 활동에 열의가 높다. 하나의 과제를 바라보는 러시아 젊은이들의 태도가 다양하고 개성이 뚜렷한 것도 인상적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러시아 직원들은 취미 생활과 노는 데도 진심이다. 대학생들과 만나는 행사에서 LG의 슬로건이 ‘인생은 즐겁다’인데, 어떤 삶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지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우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답변이 많았다. 자본주의적 사고가 스며든 러시아 사회지만 아직은 전통적 가치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의 한국학 분야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데, 국내에서는 러시아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가 드물어서 문제다. 장차 러시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우리 젊은이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을 꼽는다면……

러시아에 관심을 가져봐야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러시아가 한국의 미래에서 갖는 위상과 잠재력을 설명하고 관심을 고취하는 일은 전공 분야 교수나 실무에 종사하는 나 같은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 분야를 선택하려면 개인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노력해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과 더불어, 러시아에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느낀 것을 자기만의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러시아어 표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행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 노영남

현 능력이 중요하다. 논리와 감성을 겸비한 언어 능력을 말하는 거다. 러시아 관련 전공자가 아닌 내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그 능력만으로도 부족하고 현지 엘리트들과 대등하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실제로 러시아 젊은 세대 엘리트들은 영어에 아주 능하다. 이들과 경쟁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러시아가 아닌 어느 나라에 나가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먼 앞을 보고 러시아를 공부하겠다는 신념, 개인적 역량, 외국어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젊은이들이 나와야 한·러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사회가 최근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에 오래 근무한 기업인으로 러시아 국가의 잠재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러시아는 영웅을 만들고, 그 인물을 향한 존경심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유리 가가린도 국가적 영웅이고, 천 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정교회가 배출한 성자들 또한 정신적 숭배 대상이다. 그 성인들의 이름을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어려움과 외부로부터의 도전 속에서도 결속력을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다. 세계사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깔려 있다. 그래서 외세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공격해도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물리쳤듯이 결국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나는 러시아의 저력을 모계 사회적 특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쏟는 정성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정부도 출산 장려 정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 지원 프로그램 또는 체험형 수련 시설 운영 등에 상당 규모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한동안 시내 중심이 온통 카지노와 유흥장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의 모스크바 도심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첨단 도시로 완전히 변모했다. 러시아 전체가 이렇게 변한 건 아니어도, 미래로 가는 토대 구축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성공했다고 본다. 주요 간선 도로망의 정비, 거점 도시 공항의 현대화,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 IT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북극항로 관련 청사진 등을 보면, 과거 석유·가스와 천연자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던 러시아 경제가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정부, 기업, 민간 차원 등에서 이뤄지는 양국 간 교류·협력 프로젝트들은 때로는 개별적으로, 또 어떤

“주요 간선 도로망의 정비, 거점 도시 공항의 현대화,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 IT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북극항로 관련 청사진 등을 보면, 과거 석유·가스와 천연자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던 러시아 경제가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

>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은 톨스토이를 기리는 ‘야스나야 폴랴나 문학상’, 푸시킨을 기념하는 ‘리체이 문학상’ 등을 후원하면서 문화·예술로 러시아와 소통하는 다리 놓아”

경우에는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러시아 연구자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올해 중국의 춘절 무렵 크렘린 쪽에 나갔다가 붉은 광장에서 대규모 중국 춘절 기념 축제가 열리는 걸 보고 놀랐다. 자국 기업들의 러시아 비즈니스와는 별도로 대규모 중국 홍보 행사를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었다. 러·중 문화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시기에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는 러시아의 마슬레니차 축제 행사가 크게 열렸다는 보도를 나중에 접했다. 그동안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톨스토이를 기리는 ‘야스나야 폴랴나 문학상’, 푸시킨을 기념하는 ‘리체이 문학상’ 등을 후원하면서 문화·예술로 러시아와 소통하는 다리를 놓았다. 혹여 우리가 이런 활동을 축소하거나 접는다면, 그 공간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말 것이다. 제한적인 환경 속에 있을수록, 우리 시대에 부응하는 한·러 간 협력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설계하는 일에 우리 전문가들이 나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설정한 국책 과제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쌍방에 유망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우리 러시아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구 러시아 공사관 자리에서 ⓒ RIO

‘추모와 애도의 날’ 6월 22일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역사적 분수령

2026년 6월 22일 러시아는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과 소련의 전쟁, 약칭 독소전쟁) 발발 85주년을 맞았다. 달리 말하면, 1941년 6월 22일 새벽 나치 독일이 소련과 맺은 상호 불가침 조약(리벤트로프·몰로토프 조약)을 깨고 암호명 ‘바르바로사’ 아래 세계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 작전을 감행해 소련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한 지 85년이 됐다. 이처럼 긴 세월이 흘렀어도 6월 22일은 러시아 역사와 러시아인의 의식에서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로 여전히 기억된다. 6월 22일은 1945년 5월 9일 위대한 ‘승리의 날’까지 1,418일 동안 이어지면서 소련에서만 2,700만 명의 희생자를 냈을 정도로 참혹한 학살 전쟁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01년 대조국전쟁 발발 60주년 기념 연설에서 강조했듯이,[1] 6월 22일은 20세기를 전전과 전후 두 부분으로 갈라놓은 2차 세계대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 대재앙을 낳은 커다란 역사적 분수령으로 기록된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에서 1941년 6월 22일은 약 4년에 걸친 대조국전쟁 동안 나치 독일이 소련 민중을 대상으로 자행한 가공할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시발점으로도 부각·강조되고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시곗바늘을 85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1941년 6월 21일 토요일에서 22일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녘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전역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평온한 주말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날 새벽 4시 무렵 동이 트기 직전 희뿌연 어둠 속에서 소

련 서부 국경 상공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여명 속에서 하늘이 불타올랐다. 독일군 포병대가 소련 서부 국경 초소와 비행장, 통신 거점, 군사 기지를 향해 강력한 포격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나치 독일 국방항공대를 가리키는 루프트바페 소속 전투기들이 소련 서부 영공에 침투하여 창공을 가르면서 폭격을 개시했다. 이날 새벽 소련 국경 부대들이 평시 근무 체제로 편성된 채 전시 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 지휘관들은 대규모 포격과 공습을 앞세운 독일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혼란 속에서도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며 즉각 대응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소련 공격은 곧이어 북쪽의 발트해에서 남쪽의 흑해까지 소련 영토 서부 전역으로 확대됐다. 대조국전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 특히 6월 22일 전쟁 발발 당시 독일군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됐던 지역이나 장소들은 이날 겪은 비극적 참상의 고통스러운 상처와 영웅적 투쟁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현재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전쟁의 기억

해마다 6월 22일 대조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전쟁의 상처와 기억을 깊이 되새기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브레스트 요새이다. 현재 벨라루스 땅인 이곳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민중 등 소련 국민이 독일군의 침략전에 맞서 함께 싸운 집단적 저항과 비극적 희생, 영웅적 투쟁 정신이 아로새겨진 기억의 성지로서 벨라루스와 러시아 모두에 중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 85년 전 6월 22일 새벽 5시 독일 중부집단군은 소련 서부 최전방 브레스트 지역 일대를 공략해서 점령하고 더 나아가 요새 인근의 부크강을 건너서 바르샤바·모스크바 간 철도와 도로를 통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경수비대 등 소련군은 브레스트 일대를 독일군에 호락호락 내주지 않았다. 이들은 압도적 전력을 앞세운 독일군의 공격에 국경 방어선이 무너지자, 브레스트 요새로 퇴각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계속 항전했다. 하지만 독일군 침공 초기 브레스트 요새의 소련군은 전력상 역부족이었다. 결국, 6월 29일 요새가 함락됐고, 국경수비대도 모두 산화했다. 피비린내 났던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에서 소련군 전사자는 2,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6월 22일 전쟁 발발과 동시에 시작된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은 반파시즘 조국 수호 투쟁에서 불굴의 의지와 용기, 헌신과 희생, 영웅 정신을 선취한 사례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이 방어전을 재현한 이야기는 소련 시대에나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애국주의 함양과 국민 통합을 위한 집단 정체성 강화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로 기능했다. 예를 들면, 자하르 아그라넨코와 에두아르트 티세 감독은 1956년 6월 21일 대조국전쟁 발발 1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개봉한 공동 제작 영화 「불멸의 수비대」를 통해 종전 이후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을 대중의 기억 속에 최초로 소환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판도를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전설적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그린 극영화가 소련에서 1980년대 말에 가서야

“브레스트 요새는 해마다 6월 22일 대조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전쟁의 상처와 기억을 깊이 되새기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 가운데 하나”



브레스트 요새 수비대 ⓒ 위키피디아

나왔던 점과 비교한다면, 독일군의 압도적 전력에 결연히 맞서 브레스트 요새를 사수하다 산화한 용사들에 관한 영화가 전후 15년 만에 선보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고 할 수 있다. 「불멸의 수비대」 외에도 이후 소련에서는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을 다룬 작품이 몇 편 더 나왔다. 이는 1941년 6월 22일 전쟁 발발 첫날부터 브레스트 요새에서 국경수비대 등 소련군과 민간인 모두가 보여준 반파시즘 투쟁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서려 있고 이런 전쟁의 기억을 소환해 재현하는 데서 다름 아닌 영화 매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뒷받침해 준다.

'러시아성'의 부각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나온 러시아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극화되어 나오면서 전쟁의 기억을 떠올려줬다. 예를 들면, 1995년 안드레이 말류코프 감독은 1941년 6월 22일 대조국전쟁 발발 당일 브레스트 요새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는 러시아 병사다」를 선보이면서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에 관한 전쟁의 기억을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최초로 재소환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소련 시대 브레스트 요새에서 벌어진 대조국전쟁에 관한 영화가 제목에서부터 '러시아성'을 크게 부각했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하게도, 이런 면에서 말류코프는 소련 해체 직후 반소 경향을 강하게 보인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소비에트 과거에 대한 부정이나 부인, 거부 정책 속에 러시아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여 부각·강화하고자 했던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러시아의 문화정치 행보와 궤를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민족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상징 정책의 일부로 낫과 망치가 들어간 소련 국기 대신에 러시아 삼색기를 사용했고, 쌍두독수리를 러시아 국가 문장으로 채택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말류코프의 영화 끄트머리에서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에 참여한 소련군 병사가 자신의 '러시아성'을 일부러 강조하려는 듯이 '나는 러시아 병사다'라며 반복적으로 외치는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말류코프는 1974년 출판된 보리스 바실리예프의 소설 「그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를 원작



영화 「나는 러시아 병사다」에서 '러시아 병사' 플루지니코프에게 경의를 표하는 독일군 장군 ⓒ kinopoisk.ru

으로 삼아 영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영화 제목을 원작 소설과 다르게 지었다. 소설 주인공 콜랴 플루지니코프는 브레스트 요새 함락 이후 지하 토굴에 숨어서 계속해서 싸웠지만, 자신과 가까운 유대인 바이올린 연주자 스비츠키와 그의 가족이 붙잡혀 처형될 위기에 빠지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 독일군에 투항한다. 곧이어 콜랴는 "성이 뭔가? 계급은? 소속 부대는?"이라고 심문하는 독일군 장군의 말에 "나는 러시아 병사다"라고만 대답할 뿐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끝까지 절대 밝히지 않는다. 그러자 독일군 장군은 비록 콜랴가 적군이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의 결의를 높이 사며 경의를 표한다.

말류코프는 자신이 만든 영화 제목을 바로 이 장면에서 따왔다. 말류코프가 옐친 정부의 탈소 또는 반소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를 영화 문맥에 의식적으로 반영했든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그는 소비에트 시대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에 관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영화의 전쟁 기억에서 '러시아성'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었다. 어쩌면 말류코프는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을 포함한 대조국전쟁에서 바로 러시아가 핵심 역할을 담당했음을 강조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말류코프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가 자기 영화에서 '러시아성'을 부각한

> "말류코프가 자기 영화에서 '러시아성'을 부각한 것은 1990년대 옐친 정부의 러시아 민족 정체성 확립·강화 정책의 일반적 흐름과 일맥상통해"

것은 1990년대 옐친 정부의 러시아 민족 정체성 확립·강화 정책의 일반적 흐름과 일맥상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1941년 6월 22일 대조국전쟁 발발일과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에 대한 전쟁의 기억은 소련 해체 이후 탄생한 러시아연방에서 새로운 시대적 맥락 속에 재소환됐다.

기념일 제정

흥미롭게도, 옐친은 말류코프의 영화가 나온 지 1년 후인 1996년 6월 22일 대조국전쟁 발발 55주년에 맞춰 이날을 '추모와 애도의 날'로 공식 지정했고, 이것을 자신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2] 옐친과 그의 경쟁자인 겐나디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대표는 1996년 6월 16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득표율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7월 3일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이 투표에서 옐친은 득표율 54.40%를 확보하여 40.73%에 그친 주가노프를 따돌리고 대선에서 마침내 승리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다시 한번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옐친이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쟁 대비 태세 부족과 판단 착오 등 소련 공산당 정권의 잘못을 상기하고 반소비에트 정서를 일으킴으로써 유권자 지지를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당수에게서 자신에게로 끌어올 수 있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옐친은 2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 6월 22일 대조국전쟁 발발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정치적 고려가 담긴 상징적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옐친은 전쟁 발발일인 6월 22일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특히 전쟁의 비극이 스탈린 등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의 잘못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함으로써 자신의 반대파인 공산당 세력에 대한 비판을 끌어내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우위도 점할 수 있었다.[3] 이처럼, 6월 22일 기념일 제정을 통해 옐친은 공산당 세력이 정권을 잡아 복귀한다면 소비에트 과거처럼 전쟁의 비극을 낳는 등 러시아의 미래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신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전통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옐친은 6월 22일을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하여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그 후 러시아에서 이날은 옐친 자신도 일반 국민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은 가운데 대대적으로 기념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옐친이 퇴임 7개월을 앞두고 1999년 12월 31일 전격 사임할 때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6월 22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긴 했지만, 그런 뒤에 이렇다고 할 만한 후속 조치나 제안을 보여주지 않았다. 게다가, 6월 22일이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비극적 전쟁 발발일의 기억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기념되곤 하는 5월 9일 전쟁 '승리의 날'에 밀려 러시아 국민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

> "6월 22일 기념일 제정을 통해 옐친은 공산당 세력이 정권을 잡아 복귀한다면 소비에트 과거처럼 전쟁의 비극을 낳는 등 러시아의 미래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음을 시사"

억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므로 비극적 참상으로 점철된 6월 22일 전쟁 발발일은 옐친 정부의 기념일 제정 이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지하게 기념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2000년 옐친의 후임으로 푸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조국전쟁 발발일인 6월 22일도 러시아의 전쟁 기억 의식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무엇보다도 푸틴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권한대행 딱지를 떼고 정식 대통령 신분으로 2000년 6월 22일 '추모와 애도의 날'을 맞아 크렘린 옆 무명용사 묘를 처음으로 찾아 헌화했다. 특히, 이날 헌화 행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푸틴 시대 사반세기 이상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 기억 의식의 중요한 전통으로 러시아 전역에 걸쳐 새롭게 자리 잡았다. 실제로 이때부터 러시아 지방 곳곳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현지 전쟁 기념 공원에 있는 기념비를 찾아 화환을 바쳤고, 러시아 전국 각지에서 관련 추모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또한, 2009년 1월 27일 레닌그라드 봉쇄 돌파 65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추모의 촛불' 밝히기 행사도 같은 해 6월 22일부터 밤 9시에 맞춰 러시아 전역에서 열리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4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궁전 광장에서 5,000명이 모여 '추모의 촛불' 행사에 참여했고, 2020년부터는 이 행사가 러시아에서만 아니라, 독일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푸틴이 '추모와 애도의 날'에 무명용사 묘 헌화를 시작한 지 25년 이상이 흘렀지만, 그가 이 기념일과 관련하여 연설한 적이 그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푸틴은 대통령이 된 지 1년 만인 2001년에 바로 대조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6월 22일 '추모와 애도의 날' 기념 연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다. 더 흥미롭게도 이날 연설에서 푸틴은 6월 22일을 러시아 민족정신의 강인함을 시험하는 날로 언급했지만, 그와 동시에 "전쟁 직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던 그 누구도 위협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정치적 근시안과 개인적 야망을 극복하지 못한 대가로 결국 수백



2001년 6월 22일 '추모와 애도의 날'에 크렘린 옆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는 푸틴 대통령 ⓒ 위키피디아

> “옐친 시대와 달리 푸틴 시대에는 전쟁이 남긴 집단적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기억에서 차츰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전쟁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져”

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4]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조국전쟁 발발 원인과 책임을 소련 공산당 정권의 잘못에서 찾으려 했던 옐친 시대의 일반적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옐친 시대와 달리 푸틴 시대에는 전쟁이 남긴 집단적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기억에서 차츰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전쟁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 이는 대통령과 의회 의장 등 정부 요인들의 공식 행보에서도 눈에 띄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4년 6월 22일 ‘추모와 애도의 날’을 맞아 세르게이 나리시킨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브레스트에서 열린 러시아 과학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고, 벨라루스에서 열린 정부 기념 행사에도 참여했다. 또한, 2015년 6월 22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군사 영예 도시’ 칭호를 받은 도시 대표들에게 명예 증서를 수여했고, 2016년에는 이 기념일을 맞아 국가두마 봄 회기 폐회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특히, 2020년에 푸틴은 러시아군 본당인 그리스도 부활 대성당이 모스크바 근교 쿠빈카의 ‘애국자’ 군사 공원에서 문을 열었을 때 6월 22일 대조국전쟁 발발 기념일에 맞춰 이곳을 방문해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했다. 6월 22일에 맞춰 이뤄진 러시아 정부 요인들의 이 모든 행보는 무엇보다도 대조국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의식의 한 부분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적, 민족적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정치적 행보의 일부이기도 했다.

영웅주의 정신

현대 러시아에서 6월 22일을 ‘추모와 애도의 날’로 기념하는 과정은 푸틴 시대의 애국주의 문화 정책 기조 속에 강화·강조돼 온 영웅주의 정신 고취와 선전으로도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푸틴의 집권 1기부터 5기까지 내내 러시아 문화 정책이 민족 통합과 국민 화합을 위한 애국주의 사상 고취와 교육에 집중됐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영화의 시각 이미지 속에 재구성해 보여줬던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주목할 영화는 바로 2010년 알렉산드르 코트 감독이 러시아·벨라루스 합작으로 만든 「브레스트 요새」이다. 이 작품은 1941년 6월 22일 대조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시작된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에서 소련군 병사와 주민들이 보여준 영웅적 결사 항전을 집중적으로 묘사한다.

이런 점에서 코트의 영화는 소비에트 시대의 영화 「불멸의 수비대」와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영화 「나는 러시아 병사다」에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애국주의와 영웅주의 정신의 전통을 잇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을 묘사한 전작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중요한 대목은 바로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시점이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현재로 바뀌면서 방어전 참전용사이자 전쟁 영웅인 주인공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 기념 공



영화「브레스트 요새」중 한 장면 ⓒ 위키피디아

원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 있다. 이 장면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세대 간 연속성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억이 현재와 미래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국민 전체가 남녀노소를 아우르며 하나로 통합된다는 점을 암암리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1995년 말류코프 감독의 영화 원작으로 쓰였던 바실리예프의 소설이 정확히 30년 뒤인 2025년에 다시 한번 영화화됐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세르게이 코로타예프 감독이 2025년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에 맞춰 다름 아닌 바실리예프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에 관한 영화를 제작해 선보였는데, 이때 그는 말류코프와 달리 원작 소설『그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를 영화 제목에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코로타예프가 선행 영화들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애국주의와 영웅주의 정신은 고스란히 유지·강조하되 말류코프와 달리 '러시아성'의 부각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아닌 게 아니라, 코로타예프는 15년 전 코트가「브레스트 요새」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요새 방어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점을 의식해서였는지 '러시아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소련이라는 하나의 조국 아래 똘똘 뭉쳐 항전하는 소련군과 민간인의 영웅적 투쟁을 집중 조명했다.

희생자 의식

2026년 6월 22일은 대조국전쟁 발발과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 개시 8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특히, 올해는 6월 22일이 1996년 대통령령에 따라 '추모와 애도의 날'로 지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처럼 6월 22일의 역사적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더 남달랐던 올해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와 국민 전체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무명용사 묘 헌화와 '추모의 촛불' 밝히기 등 옐친 시대 이후 새롭게 확립된 기념일 관례에 따라 다양한 행사에 참석·참



2026년 6월 22일 '추모와 애도의 날'에 맞춰 굴라크 역사박물관 건물에 문을 연 소련 국민 제노사이드 희생자 기억의 박물관
ⓒ RIO

여했고, 그날의 위대한 투쟁을 기억하고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기관이나 단체도 6월 22일을 맞아 추모 행사와 함께 전쟁의 기억을 새롭게 되새기는 행보를 선보였다. 그런 행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대조국전쟁 당시 나치 독일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소련 국민 제노사이드 기념관이 지난 4월 폐쇄된 굴라크 역사박물관 건물에서 6월 22일 기념일에 맞춰 개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러시아에서 전쟁의 기억이 애국주의와 영웅주의 정신 속에 계속 유지·강화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희생자 의식(Victimhood)을 부각하여 국민 통합을 유도·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25년 4월 19일 레닌그라드주 갓치나에서 소련 국민 제노사이드 기념 공원을 개원하고 2026년 같은 날 소련 국민 제노사이드 희생자 추모일을 처음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전쟁의 기억 제도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정 30주년을 맞은 올해 6월 22일 '추모와 애도의 날'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의 기억을 희생자 의식 속에 새롭게 강조·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제도적 행보와 긴밀히 맞물려 기념됐다고 결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Vladimir Putin. "Address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Beginning of the Great Patriotic War." http://en.special.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271

2 Константин Пахалюк. "22 июня и ценностный язык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https://historyrussia.org/tsekh-istorikov/22-iyunya-i-tsennostnyj-yazyk-rossijskoj-politiki-vojna-i-pamyat.html

3 같은 곳.

4 Vladimir Putin. "Address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Beginning of the Great Patriotic War."

SPIEF 2026
러시아는 서방 복귀를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대표

서론: 미래 전략 선언으로서 SPIEF

매년 6월 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은 흔히 '러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29차 SPIEF는 단순한 투자 유치 행사를 훨씬 더 넘어섰다. 올해의 주제는 '실용적 대화: 안정적 미래를 향한 길(Pragmatic Dialogue: The Path to a Stable Future)'이었으며, 공식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142개국에서 약 2만 명이 넘는 정·재계 및 전문가 그룹이 참석해 거대한 지정학적·경제적 전환기 속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됐고, 포럼 중 1,084건, 총 6조 6,400억 루블(약 840억 달러 상당)의 협약이 체결됐다.

포럼 행사 규모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약의 성격이다. 서방 자본의 빈자리는 BRICS·중동·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파트너들로 채워졌으며, 러시아 국내 자본 비중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2년 이후 SPIEF가 '제재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묻는 자리였다면, 2026년의 SPIEF는 '서방 이후의 세계를 누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 "2022년 이후 SPIEF가 '제재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묻는 자리였다면, 2026년 SPIEF는 '서방 이후의 세계를 누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져"



제29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기조연설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 러시아 대통령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체 회의 기조연설에서 "고립은 처음부터 없었다. 고립을 시도한 것은 미국의 전 행정부이고, 유럽의 위성국가들이 뒤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수사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자는 인도의 저명 방송인이 맡았고, 연단에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탄자니아 대통령, 한정(韓正) 중국 부주석이 함께 자리했다. 서방을 대신한 새로운 외교 좌표가 회의장 무대 위에서 시각적으로 구현됐다.

1. BRICS의 진화: 탈달러를 넘어 금융 인프라 구축 단계로

BRICS 관련 논의가 SPIEF에서 등장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의 SPIEF에서 BRICS는 주로 정치적 선언의 무대였다. '탈달러화', '서방 제재 대응', '다극 질서'라는 구호들이 반복됐지만, 그것이 실제 금융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올해는 달랐다. 핵심 세션인 'BRICS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금융 보고 신뢰'는 제목만 보면 기술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내용은 BRICS 경제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 장애물이란 다름 아닌 신뢰 인프라의 부재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설계한 회계기준(IFRS), 감사 체계,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존한다.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미국·영국계 기관이며, SWIFT 메시지 시스템도 사실상 미국의 통제 속에 운용된다. 러시아는 2022년 SWIFT 차단을 통해 이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무기화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다.

이에 따라 올해 SPIEF에서는 BRICS 자체의 회계기준 도입, 독자적 감사 체계 구축, 회원국 간 전문 인증 상호 인정, 그리고 자체 신용평가 체계 수립에 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주목

할 점은 이 논의가 아직 '달러를 대체할 단일 결제 화폐'를 만드는 단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이전 단계, 즉 서로의 기업 재무제표와 자산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구축하는 작업이 중심이었다.

이 선택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푸틴은 전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이 논의의 전략적 맥락을 규정했다. 구매력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BRICS의 비중은 이미 약 40%에 달하지만, 주요 7개국(G7)의 비중은 29%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49%를 BRICS가 담당했고, G7의 기여는 19%에 불과했다는 수치도 제시됐다. "우리가 만든 통계가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수치"라는 푸틴의 발언은 해당 수치의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선전 논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BRICS 내부 교역 규모가 이미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공동 자본시장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신뢰 인프라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올해 SPIEF의 BRICS 논의는 정치적 구호에서 제도적 설계로, 의지의 표명에서 실무적 공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주요 파트너 국가별 교역 현황 및 기록 수치

파트너 국가	교역 규모	전략적 특징
러시아–중국	약 2,300억~2,400억 달러 (2025년)	3년 연속 2,000억 달러 초과, 2026년 1~4월 19.7% 증가(852억 달러)
러시아–인도	630억 달러 (2025년)	역대 최고, 자국 통화 결제 최대 98%
러시아–아프리카	270억 달러	역대 최고
러시아–브라질	120억 달러 (2024년)	역대 최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ASEAN	260억 달러	17.9% 성장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40억 달러 이상	2년간 2배 증가

출처: 로스콩그레스 발표 자료

2.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다극화 금융·무역질서 고착화

과거 SPIEF가 서구권 대기업과 유럽 국가들의 투자 유치 창구 기능을 주로 했다면, 올해 포럼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와 BRICS 국가들이 주도권을 완전히 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에너지와 교통 분야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200명 규모의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양국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경제 협력 방안을 쏟아내며 크게 주목받았다.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 경제 축을 글로벌 사우스로 완전히 이동시켰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실리적 비즈니스와 소프트파워(인적 문화 교류) 채널은 언제든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번 포럼을 통해 대외적으로 과시해”

포럼에서는 공급망 교란과 세계 시장의 파편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 자국 통화 결제 확대, 신규 무역 회랑(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등)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다. 서방의 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 보증과 실리적 에너지·기술 파트너십을 확보하려는 주권 국가들의 움직임이 이제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 도구로 정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이번 포럼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이점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공조 체제 다변화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라시아 경제 축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이른바 ‘CA+’ 형태의 다자 협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순한 원자재나 농산물 무역을 넘어 약 470억 달러 규모의 330여 개 공동 프로젝트가 가동 중임이 확인됐으며, 포럼 기간 중 부하라(Bukhara) 내 ‘중앙아시아-러시아 산업 엔지니어링 허브’ 설립, ‘아그로익스프레스(AgroExpress)’ 물류 고속화, 그리고 ‘지역 원자력 에너지 역량 센터’ 신설 등이 논의됐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와 공동 투자 중심의 시스템적 장기 파트너십으로 경제 체질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이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이번 포럼에서 러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조를 대폭 강화하는 우회 전략을 펴고 있다. 러시아와 무역 회랑이 뚫려 있는 이들 국가에 일본의 제조·기술 인프라 투자를 늘림으로써, 유라시아 공급망 재편에 간접적으로 발을 담그는 형국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 경제 축을 글로벌 사우스로 완전히 이동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립이 아니라 ‘미국·유럽을 포함한 다극 체제의 인정’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실리적 비즈니스와 소프트파워(인적 문화 교류) 채널은 언제든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번 포럼을 통해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3. 인공지능(AI)과 기술 주권: 혁신의 언어가 아닌 생존의 언어

이번 포럼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미래를 형성하는 기술(Technologies Shaping the Future)’ 세션이었다. 러시아는 서방 기업들의 철수 이후 본격화한 수입대체 전략을 넘어, 디지털 및 기술 주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다. 올해 SPIEF에서 AI는 단순한 산업 트렌드 주제가 아니었다. 러시아는 AI를 국가 주권의 핵심 구성 요소로 공식 규정하고 있으

> “러시아가 강조하는 기술 주권 개념에서 본다면,
> 미국의 담론이 패권과 혁신의 언어로 AI를 포장한다면,
> 러시아에서 AI는 절박함의 언어로 다뤄지며 그 절박함의 실체는
> 인구 구조적 위기에 있어”

며, 이 논리는 SPIEF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관통했다. 푸틴은 기조연설에서 AI, 자율 시스템,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명하며 “새로운 기술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AI, 자율 시스템,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솔루션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 현장에는 러시아산 AI, 로봇공학, 양자·바이오 기술, 무인 기술이 대거 소개됐으며, 에너지 인프라의 국산화 고도화 성과도 함께 공유됐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내 대규모 혁신 센터(ITMO Highpark 등)와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IDC) 신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가속화 등의 대형 투자 계약들이 체결되며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가 다극화 체제 안에서 독자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러시아는 자체 AI 모델(기가챗)을 보유한 세계 약 10개국 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주요 벤치마크에서 미국·중국보다 약 6~9개월 더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고 기술 추격자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AI산업을 주도하는 스베르방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산업 예상 규모가 11조 2,000억 루블로 GDP의 6% 이상이바지할 것이며, 러시아 데이터센터 필요 용량은 2030년까지 4.3GW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약 10조 루블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가 강조하는 기술 주권 개념은 미국이나 중국이 AI를 논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미국의 담론이 패권과 혁신의 언어로 AI를 포장한다면, 러시아에서 AI는 절박함의 언어로 다뤄진다. 그 절박함의 실체는 인구 구조적 위기다. 러시아는 노동 가능 인구의 정체와 전쟁 동원



제29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부대행사장 ⓒ RIO

에 따른 노동력 공백이 겹치면서 생산성 문제가 경제 전반의 핵심 취약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AI와 자동화는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보상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기술 주권의 구체적 내용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자국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다. 서방 클라우드 및 플랫폼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국내 인프라 안에서 완결하는 것이 목표다. 둘째는 독자 AI 모델 구축이다. 이는 단순히 대형 언어 모델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의미를 넘어, 서방의 AI 거버넌스 프레임 바깥에서 작동하는 독자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선언이다. 셋째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육성이고, 넷째는 자율 시스템의 산업화다.

이런 방향성은 BRICS AI 협력과 맞물려 전략적 함의를 띤다. 러시아는 이미 2023년 BRICS 의장국 시절부터 BRICS 틀 안에서 AI 거버넌스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해 왔다. SPIEF 2026은 그 연장선에 있다. 회원국들이 서방의 AI 규범(EU AI Act 등)과는 별도의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기술 표준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전시 경제 이후: 러시아의 새로운 성장 방정식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 정책의 기본 목표는 생존이었다. 급격한 루블 폭락과 수입 공급망 붕괴를 방어하는 것, 그리고 국방 생산을 가속화하면서도 소비 경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그 결과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내구성을 보였다. IMF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3.6%를 기록했고, 푸틴은 SPIEF에서 러시아의 경제 동학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수년째 살아온 수준"으로 둔화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올해 SPIEF에서 제기된 핵심 질문은 생존 이후의 성장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또는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대답은 AI 기반 생산성 향상, 국내 자본시장 심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산업 수출, 이렇게 세 가지로 수렴된다.

알렉산드르 노바크 부총리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공식화했다. 현재 러시아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 여지가 크다는 논리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모스크바거래소(MOEX)가 루블화 표시 채권 및 주식시장을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수출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중심이다. 푸틴은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80% 이상이

> "'러시아 경제는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대답은 AI 기반 생산성 향상, 국내 자본시장 심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산업 수출로 수렴돼"

> “북극항로(NSR)는 단순한 자원 수송로를 넘어, 중국·러시아·인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체 물류 축으로 재정의되고 있어”

로사톰의 참여 아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SPIEF가 과거의 방어적 추세와 뚜렷이 달랐던 점은 분위기의 방향성이다. 2022~23년 SPIEF가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2026년의 행사는 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자신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러시아는 서방이 이탈한 자리를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설계하고 있었다.

5. 북극: 자원 개발에서 유라시아 공급망 플랫폼으로

올해 SPIEF에서 가장 뚜렷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분야는 북극이다. 과거의 북극 세션이 LNG, 석유, 가스, 광물 등 자원 개발의 논리로 구성됐다면, 올해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된 ‘새로운 글로벌 물류 프런티어와 북극 물류 프레임워크’ 세션은 전혀 다른 좌표계를 제시했다. 북극항로(NSR)가 단순한 자원 수송로를 넘어, 중국·러시아·인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체 물류 축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환의 배경에는 실증 데이터가 있다. 2025년 기준 SCF그룹은 NSR에 31척의 선박을 배치해 52항차를 운항했으며, 수송 물동량은 610만t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러시아 최초의 자체 건조 LNG선인 알렉세이 코시긴호는 2025년 12월 첫 북극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6년 동절기 운항에서도 성과를 확인했다. 동시에 가스프롬방크는 2018년 이후 NSR



올해 SPIEF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 RIO

>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고위급 참석은 북극항로가 러시아만의 내수용 항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해상 교통망의 주류로 진입했음을 상징”

및 북극 인프라 프로젝트에 1조 루블(약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또한 NSR 전용 위성 통신망 구축(BURO 1440)에 착수해 2026년 말까지 일일 운영 시간의 70% 확보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비북극권 국가이자 글로벌 물류의 핵심 축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고위급 참석은 북극항로가 러시아만의 내수용 항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해상 교통망의 주류로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홍해 및 수에즈 운하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존 남방 항로의 취약성을 절감했다고 밝힌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장관은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항로’로서 북극항로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글로벌 물류 허브가 되는 것으로 북극항로 및 이와 연계된 다국적 물류 프레임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자국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노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흐름에서 인도의 부상 역시 주목받았다. 인도 고위급이 직접 참석한 이 세션에서 인도 대표단은 NSR를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금융·산업 협력 전체를 연결하는 전략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이란·미국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NSR의 전략적 가치는 더 부각됐다. 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약 15~20일의 항해 시간 단축 효과가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첸나이를 잇는 러시아·인도 해상 운송 회랑이 NSR과 연결되면 인도가 유럽까지 이어지는 북방 항로에 진입할 수 있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SPIEF 2026 현장에서는 러시아와 인도 당국이 NSR 화물 기반 개발 및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약에 합의했다. 양국 무역의 약 97%가 이미 루블-루피 자국 통화로 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극항로는 단순히 지리적 통로가 아니라 탈달러 물류 생태계의 인프라 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실적 제약도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 실적(3,790만t)은 러시아의 NSR 물동량 목표치(2024년 목표 8,000만t)에 크게 못 미쳤다. 연중 운항 체계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며, 쇄빙선 인프라 확대와 보험·법제 환경 정비는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SPIEF 2026의 논의는 그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복합 공급망 구도가 이미 실질적 협력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6. 미국의 귀환? 제한적 실용 협력의 신호

올해 SPIEF에서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중 하나는 미국 공식 대표단의 참석이었다. 로스콩그레스와 주러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한 두 개의 대화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이념의 접



제29차 SPIEF에서 열린 미·러 비즈니스 및 문화 다이얼로그 회의 ⓒ RIO

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글로벌 현실 시대에서 실용주의와 지속적인 인적·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특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양측 기업인들은 강화되는 제재 상황에서도 기업 간 협력 형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치 사슬을 구축하며 국제 시장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 기업인들이 평가하는 미래 협력 가능 분야로는 에너지 및 우주산업, 데이터센터 인프라, 북극 협력, 의료산업 분야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관계 개선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기업들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 비즈니스 회복의 전제 조건과 발전은 향후 양국 간의 공식적 협상 프로세스 결과에 달려 있지만, 종국에는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 및 평화 협정 체결이 이뤄져야 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되고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예술위원회 위원장인 로드니 밈스 쿡 주니어가 참석한 러·미 문화 대화 세션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고위급 관료의 SPIEF 방문이 성사된 자리였다. 사회를 맡은 미하일 슈비드코이 대통령 문화특보는 "핵 군축을 논의하러 온 것 같다"고 농담할 만큼 양국 관계 개선에 이목이 쏠렸다. 양국 간의 정치·지정학적 갈등과 단절 속에서도 '문화를 통한 대화 유지와 새로운 협력 방식의 모색'이 중심 의제였다. 기존의 문화 교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대적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인도주의 정책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국제 협력 발전에서 문화 외교와 창조산업의 중요성과 예술·교육 분야(학생 교류, 건축, 극장/오케스트라 순회공연 등)의 공동 프로젝트 전망을 다뤘다. 그러나 로드니 밈스 쿡 주니어 위원장은 문화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본격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평화(분쟁 종료)'

> "미국 기업들은 미·러 양국 비즈니스 회복의 전제 조건과 발전은 향후 양국 간의 공식적 협상 프로세스 결과에 달려 있지만, 종국에는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 및 평화 협정 체결이 이뤄져야 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되고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봐"



제29차 SPIEF에서 열린 미·러 비즈니스 및 문화 다이얼로그 회의 ⓒ RIO

가 선행돼야 함을 명확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조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이번 포럼에서 미·러 간 민간 비즈니스 및 문화 다이얼로그가 개최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정부의 공식 기조와 달리, 미국계 글로벌 자본과 문화계는 전쟁 이후 시대의 기득권과 대러 채널을 완전히 놓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는 미·러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더라도 대화의 불씨는 상호 이익을 위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을 뜻한다.

7. 러시아 시장, 일본과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G7의 대러 제재 지침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실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SPIEF에 일본 역시 정부 고위급 인사나 대기업 대표이사 등 공식적인 고위급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았으나, 현지 대사관 직원, 러시아 현지 지상사 관계자들이 개별 참가자 자격으로 다수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극동 러시아의 석유·가스 프로젝트인 '사할린-1, 2'의 지분을 끝까지 유지하며 에너지 안보를 챙기고 있고, 민간 및 학술 차원의 비공식 라인을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 향후 정세 변화 시 러시아 시장에 가장 먼저 복귀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다져 놓는 형국이다.

블룸버그 등 서방 언론도 지적했듯, 표면적으로는 서구권 기업이 철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다국적 자본과 아시아계 핵심 기업들이 '숨은 관찰자' 형태로 포럼장에 나타나 네트워킹을 유지했다. 일본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제재 가이드라인을 칼같이 지키면서도, 현지 비즈니스 인프라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정보 수집과 전쟁 이후 시대를 위한 실무 라인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이면을 살펴보면 이웃 나라 일본의 대러 비즈니스 접근 방식은 한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잠행 마케팅'과 '우회 채널'을 영리하게 가동하고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과 정부는 제재 리스크를 과도하게 의식하여 비공식 실무 주재원들의 정보 수집이나 민간 차원의 징검다리 채널까지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국내 유통·제조 기업들

> “북한 고위급 관료들의 SPIEF 참석은
> 북한이 국제 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창구로 러시아를
>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줘”

이 러시아 시장에서 보유했던 기존 인프라와 브랜드 자산이 급격히 감가상각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보호막이나 가이드라인 제시가 부족하다. 제재 위반을 피하는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만 매몰되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도적·문화적·우회적’ 비즈니스 영역까지 스스로 위축시킨 셈이다. 우리 역시 일본의 이처럼 철저한 실리주의적 양면 전술을 벤치마킹하여, 공식 외교 기조는 유지하되 현지 지상사나 민간기구,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망과 인적 네트워크만큼은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유연성이 절실하다.

러시아·북한 간의 전례 없는 밀착은 SPIEF 2026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제한적이었던 대외 외교의 틀을 깨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주요 다자 경제 포럼(SPIEF, EEF 등)에 고위급·최고위급 관료를 연이어 파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창구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포럼에 북한은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경제 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했다. 윤정호는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과 무역, 외자 유치 등을 총괄하는 핵심 내각 관료로, 최근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는 러·북 간 무역, 에너지, 인프라, 노동력 송출 및 경제 협력 다변화의 실무를 가장 앞장서서 지휘하는 인물이다. 북한이 이처럼 경제 사령탑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한 공식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과거의 일회성 참관을 넘어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적 밀착(수입대체 전략 공조, 에너지 및 첨단 기술 전수 등)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대외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양국의 밀착은 초기의 군사·정보기술 협력을 넘어, 최근에는 러시아의 수입대체 전략과 맞물려 있다. 북한의 노동력 송출 재개 움직임, 농업·임업 분야 협력, 그리고 러시아의 첨단 과학기술 및 에너지 인프라 전수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협력 구조로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결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시장이 아니라 질서를 읽어야 할 때

많은 한국 기업과 정책 입안자는 러시아를 여전히 하나의 지역 시장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SPIEF 2026이 보여준 러시아의 관심사는 시장이 아니었다. 러시아는 BRICS 금융 인프라, AI 기반 기술 주권, 북극 물류 플랫폼, 자국 통화 결제망, 글로벌 사우스 투자 생태계를 축으로 삼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설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 변화의 의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면 더 복잡해진다. 한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다. 이것은 동맹 관리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선

> “한국이 고민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냐가 아니라, 러시아가 구축하는 새로운 질서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는 데 있어”

택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관계의 단절이 곧 정보와 네트워크의 단절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SPIEF에서 유럽의 공식 대표단이 빠진 자리를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세안,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웠다. 그리고 미국조차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 무대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한국이 현재 이 논의의 바깥에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교적 불편이 아니다. 대러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거대한 러시아 소비시장이 복원되고 북극항로가 실제 물류 인프라로 부상할 경우, 그리고 BRICS 금융 인프라가 일정 수준의 작동 가능성을 갖추게 될 경우, 그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는 경제적 선점 효과의 격차가 매우 클 수 있다.

물론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이 현시점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 수집과 분석, 제3국 경유 공급망 네트워크 유지, 그리고 BRICS+ 국가들과의 별도 채널 강화는 제재와 양립할 수 있는 선택지다. SPIEF를 둘러싼 논의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 그 자체가 아니라, SPIEF가 반영하는 세계 질서 재편의 방향성이다.

올해 SPIEF가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러시아는 서방 복귀를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BRICS, 북극, AI, 자국 통화 결제망을 축으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으며, 미국조차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새로운 질서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SPIEF에서 만난 로버트 에이지 주러 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대표 ⓒ RIO

카를 네셀로데
러시아 외교 재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글 _ 나탈리야 탄시나 러시아 역사가
번역 _ 이태훈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19세기 러시아 외교를 이야기할 때 카를 네셀로데 백작만큼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은 인물도 드물다. 그는 40년 동안 러시아 제국 외무부를 이끌며 빈 체제와 유럽 협조 체제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당대부터 그는 '난쟁이', '겁쟁이', '독일인', '러시아를 배신한 외교관'이라는 혹독한 비난에 시달렸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 평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또 알렉산드르 1세와 니콜라이 1세는 왜 그런 '보잘것없는' 인물에게 40년 동안이나 러시아 외교를 맡겼을까? 정말 네셀로데는 무능함과 자기 앞가림만으로 두 황제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크림 전쟁 패배 이후 그는 러시아 외교 실패의 상징으로까지 낙인찍혔고 이런 이미지는 역사학과 문학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네셀로데를 둘러싼 수많은 비판은 반드시 그의 실제 외교 성과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그를 향한 비난은 민족주의의 확산과 크림 전쟁의 패배, 슬라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그리고 후대 역사학과 문학이 만들어 낸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네셀로데는 친오스트리아·친영국 정책을 펼친 인물로 비판받았다. 러시아에서는 국익을 저버린 외교관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서유럽에서는 오히려 황제의 뜻을 충실히 수행하며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실제 네셀로데의 외교는 어느 쪽에 가까웠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역시 국익과 국제협력, 동맹과 자주외교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외교는 과연 국익을 희생하는 것일까? 반대로 국익만을 앞세우는 외교가 언제나 국가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19세기 유럽에서 활동했던 네셀로데의 외교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외교의 근본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국제적 책임과 국가의 실리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는 지금도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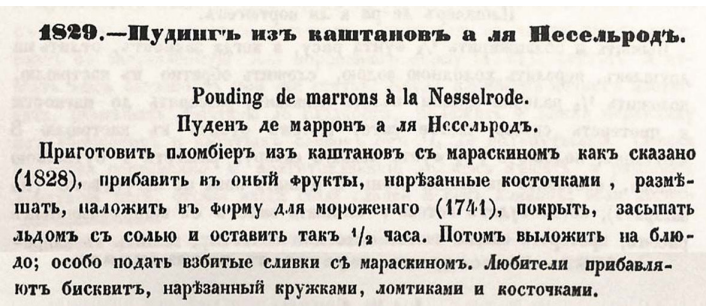
이번 호 「역사 프리즘」은 《루스키 미르》 2025년 11월호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 제국 외무부를 40년 동안 이끈 카를 네셀로데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살펴본다. 그의 생애와 외교 정책, 그를 둘러싼 동시대와 후대의 평가를 함께 따라가며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이미지와 실제 인물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19세기 러시아 외교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과 함께, 역사 속 인물을 평가할 때 결과뿐 아니라 그 시대의 국제질서와 정치적 맥락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네셀로데를 둘러싼 오해

카를 네셀로데 백작은 40년 동안 러시아 외교를 이끌고 60년 넘게 국가에 봉직한 러시아 제국 재상이었다. 그가 활동한 19세기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전례 없는 위신을 누렸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대 대중은 네셀로데를 '난쟁이', '사기꾼', '겁쟁이', '러시아를 배신한 독일인'으로 묘사했다. 이런 고정관념은 20세기에도 이어졌고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크림 전쟁(1853~56)이 한창이던 1854년 슬라브주의 역사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미하일 포고딘은 황제 니콜라이 1세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러시아 외교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러시아 외교는 자국의 이익마저 희생하면서 유럽 질서의 유지에 매달렸고, 이를 외교의 최고이자 사실상 유일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포고딘의 비판은 당시 슬라브주의자들이 네셀로데의 외교 노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의 눈에 네셀로데 외교는 러시아의 이익보다 유럽 국제질서의 유지와 열강 간 균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비쳤다. 따라서 크림 전쟁의 패배가 가시화되자 비판의 화살도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외교를 총괄해 온 네셀로데에게 향했다.

포고딘의 동지였던 베라 악사코바는 1855년 3월 11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만약 네셀로데만 아니었다면 황제는 추악한 독일식 정책으로 빠져들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우리에게 치욕


1829.—Пудингъ изъ каштановъ а ля Нессельродъ.

Pouding de marrons à la Nesselrode.
Пуденъ де марронъ а ля Нессельродъ.

Приготовить пломбіеръ изъ каштановъ съ мараскиномъ какъ сказано (1828), прибавить въ оный фрукты, нарѣзанные косточками, размѣшать, наложить въ форму для мороженаго (1741), покрыть, засыпать льдомъ съ солью и оставить такъ ½ часа. Потомъ выложить на блюдо; особо подать взбитые сливки съ мараскиномъ. Любители прибавляютъ бисквитъ, нарѣзанный кружками, ломтиками и косточками.

19세기 요리책에 실린 네셀로데의 푸딩 조리법 ⓒ《루스키 미르》

> "네셀로데가 활동한 19세기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전례 없는 위신을 누렸던 시기"

> “네셀로데는 독일계라는 점 때문에 비난받았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조롱받아”

과 난관을 안겨 준 것은 바로 그 매국노다. 오직 그 한 사람 때문이다!” 이 기록은 크림 전쟁 말기 슬라브주의 진영이 네셀로데를 얼마나 심하게 적대했는지를 보여준다. 악사코바는 러시아의 외교적 실패와 국가적 굴욕의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네셀로데에게 돌리고 있다. 특히 그가 추진한 친유럽적이고 보수적인 국제질서 중심의 외교를 ‘독일식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러시아의 국익과 대립하는 노선으로 간주했다.

네셀로데는 별의별 일로 비난을 받았다. 독일계라는 점 때문에 비난받았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조롱받았으며 부유한 아내를 둔 것 때문에도 공격받았다. 또한 삶을 즐길 줄 알고 세련되게 살아간다는 점마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네셀로데와 동시대에 살았던 작가이자 평론가이며 극우 성향 인물이기도 했던 블라디미르 메셰르스키는 그에 대해 이렇게 썼다. “유명한 외무부 장관 네셀로데 백작은 키가 작았지만, 왜소하거나 평범한 인물은 절대 아니었다. 그는 영리하고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가지 큰 결점이 있었다. 첫째, 그는 정서적으로 러시아인이 아니었고, 황제와도 그런 면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둘째, 그는 놀라울 정도로 이기적인 에피쿠로스주의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러시아 외교보다는 조리 예술과 꽃 재배에 더 많이 공헌했다고 말하곤 했다.” 이 평가는 당시 보수·민족주의 진영이 네셀로데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잘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메셰르스키조차 네셀로데의 능력과 지능은 부정



상트페테르부르크 상류사회 무도회. 왼쪽부터 이반 보론초프-다시코프 백작, 카를 네셀로데 백작, 빅토르 파닌 백작, 소피야 보르흐 백작부인, 알렉산드르 체르니쇼프 공작. 1840년대 ⓒ《루스키 미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판의 핵심은 그의 역량이 아니라 그가 충분히 '러시아적'이지 못하다는 인식과 국가적 사명보다 개인의 안락하고 세련된 생활을 더 중시한다는 이미지에 있었다.

'공화주의자 공작'이라고 자칭했던 표트르 돌고루코프는 네셀로데 재상에 대해 거의 독설에 가까운 평가를 남겼다. 그는 네셀로데를 아예 "러시아 외무부의 오스트리아 장관"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썼다. "출신이나 사상으로도 독일인이었으며 구시대적 독일인이었다. 지적 범위가 넓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교활하고 빈틈없는 두뇌를 지니고 있었다. 타고난 처세술과 사람을 구슬리는 능력이 있었지만, 시대의 요구에는 완전히 무감각했고 그것을 철없는 상상력의 장난 정도로 여겼다. 그는 노련한 책략가였고, 자신 못지않게 교활한 아내의 도움도 크게 받았다. 그의 아내는 무서운 뇌물 수수자로도 악명이 높았다. 네셀로데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외교 협상을 처리하는 데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 본래 게으른 성격이라 업무나 협상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의 열정은 세 가지뿐이었다. 미식과 꽃, 돈이었다." 돌고루코프는 네셀로데의 외교적 능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실무적 협상 기술에 한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가적 비전과 전략적 안목은 결여하고 있었다고 단정한다. 나아가 그의 사생활과 아내에 대한 소문까지 끌어들여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네셀로데 백작은 자국인들에게만 미움을 산 것이 아니었다. 외국의 동료 외교관들 역시 그를 곱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프랑스계 바이에른 외교관 오토 폰 브레는 네셀로데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네셀로데 백작은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오랜 세월 황제에게 복종하며 충성스럽게 봉사했고 그 결과 황제의 신임과 함께 일정한 영향력도 확보했다. 그러나 그가 좀 더 독립적으로 행동했다면 그런 지위에 절대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평가는 네셀로데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을 보여준다. 그가 뛰어난 정치가나 전략가라기보다는 황제의 뜻에 철저히 순응하는 관료였다는 시각이다. 앞서 슬라브주의자들이 그를 '무능한 배신자'로 비난했다면, 브레는 네셀로데의 성공 비결을 '자기 의견을 앞세우지 않는 처세술'에서 찾았다.


니콜라이 1세 초상. 1868년 ⓒ《루스키 미르》

흥미로운 점은 이런 평가가 이후에도 반복됐다는 것이다. 네셀로데가 수십 년 동안 외교 수장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능력보다는 순종성과 처세술에서 찾으려는 해석이 널리 퍼졌으며 이는 훗날 그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

네셀로데 백작을 동시대인들만 싫어한 것이 아니었

"네셀로데가 수십 년 동안
외교 수장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능력보다는
순종성과 처세술에서 찾아"

다. 국내외 역사가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셀로데의 이름은 19세기 국제관계사와 외교사, 러시아 제국 외교정책사를 다룬 수많은 연구서에 등장하는데 정작 그의 활동이나 성품을 본격적으로 다룬 저서는 매우 드물다. 네셀로데는 역사 서술에서 늘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면서도 정작 연구의 중심에 놓인 적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네셀로데의 이미지는 대개 동시대인들이 남긴 비판적 평가와 후대의 고정관념을 통해 형성됐고 그를 재평가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역사가들의 시각

크림 전쟁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역사학계와 언론계에서 네셀로데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동시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자 역시 네셀로데의 외교 정책에서 주로 실책만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가 친오스트리아 노선을 추구하며 러시아의 국익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1840~41년 동방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흑해 해협이 국제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외교적 실패로 평가했으며 1830년대 후반부터 1840년대 전반까지 러시아가 추진한 친영국 정책 역시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네셀로데는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책임자로 지목되며 러시아 외교의 성과보다는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낙인찍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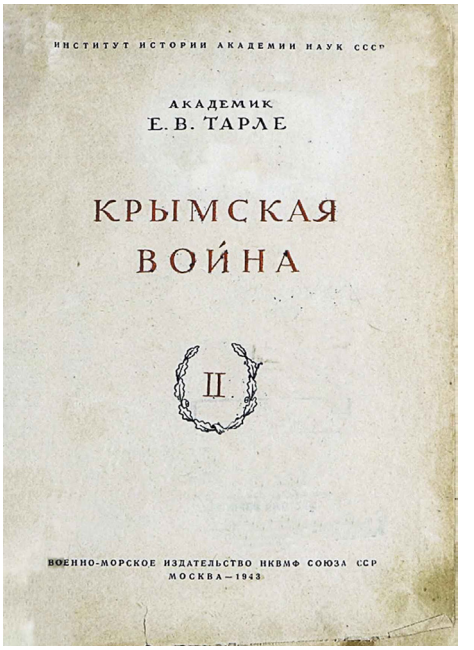
이런 시각의 출발점은 역사가이자 외교관이었던 세르게이 타티셰프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니콜라이 1세 시대의 외교 정책을 연구한 대표적 전문가다. 타티셰프는 러시아 외무부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서로 다른 출신의 인물이 뒤섞여 언어마저 제각각이었던 외교 조직은 마치 바벨탑의 혼란을 방불케 했다. 그리고 1814년부터 그 수장 자리에 러시아와는 거리가 멀고 온갖 외국적 요소들을 한 몸에 지닌 인물이 앉게 됐다..." 타티셰프는 네셀로데의 정책



「수병 이그나티 셉첸코의 희생」. 『1854~1855년 세바스토폴 삶의 단편들』 중에서. 블라디미르 마콥스키, 1872년
ⓒ《루스키 미르》

이 아닌 그의 출신과 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즉 네셀로데를 러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기보다는 러시아와 본질상 거리가 먼 외국계 엘리트로 바라본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말부터 형성된 역사학계의 시각 역시 동시대 슬라브주의자들의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셀로데는 외교적 성과보다는 '비러시아적 인물'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이해됐고 그의 정책 역시 그런 전제 위에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시기 니콜라이 로마노프는 자신의 저서 『러시아 인물상』에서 네셀로데를 매우 신랄하게 평가했다. "네셀로데는 개신교를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천주교 신자인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성공회 의식에 따라 세례를 받았다. 게다가 포르투갈에서 태어나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에서 성장했으며 죽는 날까지도 러시아어를 제대로 못 했던 그는 40년 동안 자신이 수호해야 했던 국가와 본질상 동떨어진 인물이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근시였으며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걸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하고 친절한' 인물이었고 음악과 꽃을 사랑했다. 그러나 네셀로데는 지적 역량도, 강인한 성품도 갖추지 못했다. 동시대인들은 그를 '평범한 인물' 혹은 아예 '보잘것없는 인물'로 여겼다." 이 평가는 네셀로데에 대한 비판이 단순한 외교 정책 차원을 넘어 그의 혈통, 종교, 성장 배경, 언어 능력, 성격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니콜라이 로마노프는 네셀로데가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애 이력을 길게 나열한 뒤, 결국 그를 러시아 국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인물로 묘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평가가 사실상 동시대 슬라브주의자들의 비판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셀로데는 외교적 판단의 옳고 그름 이전에 러시아를 대표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규정됐고 그 결과 그의 정책과 업적도 오랫동안 부정적 시각 속에서 해석됐다.



예브게니 타를레의 저서 『크림 전쟁』 표지. 1943년
ⓒ《루스키 미르》

소련 역사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했으나 실제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련 연구자들의 눈에 네셀로데 백작은 뿌리도 없고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의 전형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시민주의' 비판에 입각한 소련 역사학은 제정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서구에 대한 굴종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소련 역사학자들 역시 제정 러시아 시기의 연구자들과

> "소련 연구자들의 눈에 네셀로데 백작은 뿌리도 없고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의 전형"

마찬가지로 네셀로데를 비판했다. 그들은 그가 오스트리아 제국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과의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희생했다고 주장했다. 네셀로데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비러시아적 인물'로, 소련 시대에는 '무국적 세계시민'으로 비판받았을 뿐, 평가의 방향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셈이다.

네셀로데의 활동과 인물에 대해 특히 혹독하게 평가한 사람은 『크림 전쟁』의 저자인 예브게니 타를레였다. 그는 네셀로데를 니콜라이 1세의 '충실한 집사'에 불과한 인물로 묘사하며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오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네셀로데는 40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황제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거짓말을 했다. 니콜라이 1세의 속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재빨리 파악하고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움직였으며 보고서를 황제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만 보이도록 조작했다. 이것이 네셀로데가 오랫동안 재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타를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네셀로데에 대해 "작은 체구가 지나치게 큰 안경에 거의 가려질 정도였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평가가 나온 시대적 배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타를레가 『크림 전쟁』을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였으며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것은 독소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당시 소련에서 독일은 국가의 최대 적이었으며 독일계 출신인 네셀로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역사 서술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다. 더욱이 타를레는 소련 역사학계에서 절대적 권위를 누리던 학자였다. 그의 견해는 오랫동안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는 네셀로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단순히 19세기 동시대인들의 평가에만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20세기 역사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도 꾸준히 재생산됐음을 보여준다.

한때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나라'로 불리던 러시아에서 작가들의 권위는 역사학자들 못지않게 막강했다. 타를레의 『크림 전쟁』을 읽지 않은 독자는 있었어도 발렌틴 피쿨의 역사소설은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피쿨은 분명 타를레를 비롯한 역사가들의 저작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들의 평가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네셀로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매부리코를 가진 난쟁이 하나가 러시아 외교 수장 자리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 가늘고 휘어진 다리는 흰색 바지에 감싸여 있었다. 그는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사고력에서도 난쟁이였다. 미식과 번들거리는 황금 광택, 온실의 꽃향기를 무엇보다도 사랑했다." 피쿨의 이런 묘사는 역사적 평가라기보다는 거의 문학적 풍자에 가깝다. 그러나 바로 그 강렬한 문체와 뛰어난 서사 능력 때문에 수많은 독자는 네셀로데를 피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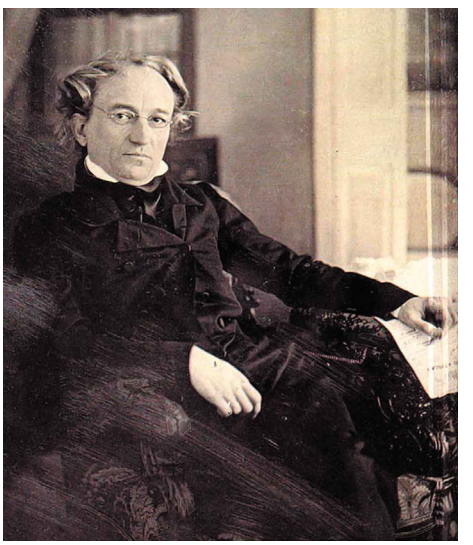
네셀로데 가문의 문장 ⓒ《루스키 미르》

> “러시아 대중의 기억 속 네셀로데는 오랫동안 ‘러시아 국익을 외면한 독일계 관료’,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 처세가’, ‘미식과 꽃을 사랑한 무능한 난쟁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아”

그려 낸 이미지 그대로 기억하게 됐다. 즉 러시아 대중의 기억 속 네셀로데는 오랫동안 ‘러시아 국익을 외면한 독일계 관료’,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 처세가’, ‘미식과 꽃을 사랑한 무능한 난쟁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됐다. 그리고 이런 대중적 인식의 형성에는 학술서보다도 오히려 피쿨의 역사소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네셀로데의 활동과 성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다. 다만 그 수가 훨씬 적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왜 동시대인들과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이 네셀로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을까? 정말로 그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식하고 묘사했기 때문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네셀로데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선다. 실제 역사적 인물과 후대에 형성된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판을 보면 상당수는 그의 외교 정책뿐 아니라 출신, 혈통, 종교, 외모, 성격, 생활 방식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는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네셀로데는 독일계 귀족 출신이었고 러시아 민족주의가 성장하던 시대에 외교를 이끌었다. 크림 전쟁이라는 국가적 패배도 그의 이름과 결부됐다. 따라서 많은 비판은 실제 정책의 성패와 함께 당대의 정치적 분위기, 민족주의적 정서, 그리고 후대 역사학의 해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네셀로데를 이해하려면 그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그런 평가가 형성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어쩌면 후대가 기억하는 ‘무능한 난쟁이 외교관’이라는 이미지는 역사적 실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정치적·문화적 신화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저명한 시인 표도르 튜체프는 네셀로데를 향해 다음과 같은 독설을 남겼다. “아니, 나의 난쟁이여! 유례없는 겁쟁이여!...” 튜체프가 왜 네셀로데에게 그토록 가혹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튜체프는 시인이면서 동시에 외교관이었고 네셀로데의 부하 직원이었다. 네셀로데는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튜체프가 요청한 제1서기관직 승진을 거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은 개인 차원을 넘어 외교 노선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됐다. 1843년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서는 이른바 ‘언론전’이 벌어졌다. 튜체프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의 저명한 필자들을



표도르 튜체프. 1848~49년 ⓒ《루스키 미르》

동원해 프랑스 언론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니콜라이 1세와 네셀로데는 국외 출판물을 냉정하게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셀로데가 모든 비판에 침묵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본 판단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친러시아적 출판물이 서구 여론을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진단만큼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시인 표트르 뱌젬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인은 자신이 속한 교구의 신앙과 자신이 읽는 신문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다." 이 사례는 튜체프의 비판이 단순히 네셀로데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가 서유럽 여론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둘러싼 전략적 견해 차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튜체프의 신랄한 평가도 일정 부분은 정치적·이념적 논쟁의 산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왜 표트르 돌고루코프 공작은 네셀로데를 마치 개인적 원수처럼 묘사했을까? 그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돌고루코프는 러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황제 니콜라이 1세와 그의 측근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돌고루코프는 뛰어난 지성을 소유한 인물이었지만 성격은 고약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러시아를 비방하는 글도 여러 차례 발표했다. 1842년에는 파리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비방문을 출판했고 그 결과 실각해 유배됐다. 이후 알렉산드르 2세 치하에서 장관직을 얻지 못하자 유럽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다시 파리에서 『러시아에 관한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에 러시아 원로원은 그에게 공작 작위를 박탈하고 재산권을 몰수했으며 영구 추방을 선고했다. 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뇌물 수수나 공금 횡령 혐의로 매우 쉽게 의심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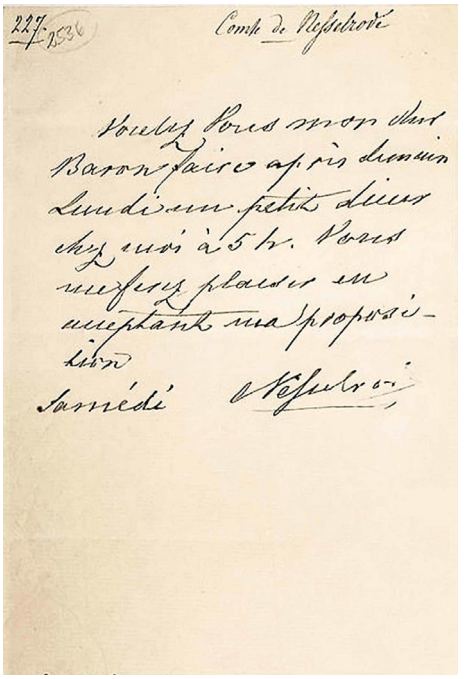
'독일인'이라는 낙인

네셀로데를 향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그가 독일계였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익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러시아를 경시했다는 것이다. 네셀로데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막시밀리안 율리우스 빌헬름 카를 네셀로데 에레스호펜 백작과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상인이자 은행가의 딸 루이제 곤타르 사이에서 태어났다. 네셀로데는 자신의 자서전 첫머리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1780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개신교도였고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였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는 니콜라이 1세 정부 내 '독일파'의 핵심 인물로 여겨졌다.



네셀로데 백작의 초상. 1818년 ⓒ《루스키 미르》

> "네셀로데를 향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그가 독일계였다는 점"



네셀로데의 자필 편지 ⓒ《루스키 미르》

표트르 대제 이래 러시아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관직에 등용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이들을 흔히 '독일인'이라고 통칭했다. 그러나 19세기는 유럽 전역에서 민족주의가 확산하던 시대였다. 그 결과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러시아인은 외국계 관료들을 점점 더 경계하게 됐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르 게르첸은 「러시아의 독일인들과 독일의 러시아인들」이라는 글에서 과거에는 독일계 인사들이 러시아에 충실히 봉사했지만, 19세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셀로데의 손자인 아나톨리 네셀로데는 1904년부터 1912년 사이 파리에서 11권에 걸쳐 조부의 서신과 문서를 출간했다. 그는 네셀로데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며 네셀로데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고조된 극단적 민족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즉 네셀로데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외교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그의 정체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많은 비판자는 그의 정책을 평가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독일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네셀로데는 러시아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러시아의 저명한 관료이자 지식인이었던 모데스트 코르프는 네셀로데가 "러시아어로 공개 석상에서 말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1840년대에도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다른 증언들도 있다. 역사가 니콜라이 우스트랼로프는 1846년 네셀로데를 방문했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의 러시아어는 독일어 억양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정확하고 자연스러웠다."

황제 니콜라이 1세도 아내와는 독일어로 대화했으며 편지는 프랑스어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 러시아 외교관으로 활동한 코르시카 출신의 샤를 앙드레 포초 디 보르고는 러시아어를 아예 몰랐다. 그런데도 그는 35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무엇보다 19세기에는 프랑스어가 외교의 공식 언어이자 사실상의 국제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어 구사 능력만으로 외교관의 역량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국익과 국제질서 사이

네셀로데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알렉산드르 1세와 니콜라이 1세의 외교 정책과 직결돼 있다. 러시아 역사학계에서는 오스트리아 빈 체제의 시기와 네셀로데가 외무부를 이끌었던 시기가 거의 정확히 겹친다. 즉 네셀로데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한 외교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1815년 이후 유럽 국제질서를 유지했던 빈 체제와 신성동맹에 대한 평가와도 밀접하게 연



상트페테르부르크 참모본부 청사. 러시아 외무부가 입주해 있던 건물이다. 1822년 ⓒ《루스키 미르》

결돼 있었다. 만약 빈 체제가 러시아 국익을 훼손한 체제였다면,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네셀로데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빈 체제를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 국제질서로 본다면, 네셀로데의 역할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네셀로데를 둘러싼 논쟁의 상당 부분은 한 개인의 능력보다도 19세기 전반 러시아 외교의 기본 노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던 셈이다.

네셀로데는 친오스트리아와 친프로이센, 친영국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또한 러시아의 국익보다 '유럽 협조 체제'를 중시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19세기 유럽 협조 체제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5대 강국이 공동으로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체제를 뜻했다. 그러나 이 체제는 러시아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여론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은 유럽 협조 체제를 그들이 혐오하는 정통주의 질서의 상징으로 여겼다.

또 다른 불만도 있었다. 유럽 협조 체제는 참가국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다. 각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으며 다른 강대국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양보해야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셀로데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그의 외교 노선만을 겨냥하지 않았다. 당시 유럽 협조 체제 자체에 대한 반감이 네셀로데에게도 그대로 투영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그가 비판받은 이

> "네셀로데를 둘러싼 논쟁의 상당 부분은
> 한 개인의 능력보다도 19세기 전반 러시아 외교의 기본 노선을
>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

> “네셀로데는 유럽의 안정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러시아의 안보와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유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강대국 간 협력과 국제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는 외교를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네셀로데는 결코 친오스트리아나 친프로이센, 친영국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타협과 절제를 중시했던 그는 국제 문제를 언제나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하려 했다. 또한 러시아의 국익을 유럽 협조 체제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유럽의 안정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러시아의 안보와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강대국 간 협력과 국제적 합의를 추구한 그의 외교는 국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 1855년
ⓒ《루스키 미르》

이런 점에서 네셀로데의 외교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다자외교나 집단안보의 발상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는 무력 충돌보다는 협상을, 일방적 행동보다는 국제적 합의를 우선시했다. 물론 이런 신중한 접근은 동시대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외교로 비쳤고 그 결과 친오스트리아·친프로이센·친영국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네셀로데의 외교를 이해하려면 어느 나라의 편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국제질서를 추구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역사가들이 네셀로데를 반러시아적 입장 때문에 비난했다면, 서구 역사가들은 그가 전제군주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며 러시아 특유의 공격적인 유럽 정책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독일 역사학계에서 네셀로데의 독일 뿌리는 깊은 관심 대상이 되지도 않았으며 네셀로데는 전형적인 러시아인으로 여겨졌다.



세바스토폴 발라클라바 조선소 부근에서 연합군 대포를 하역하는 모습. 1855년 ⓒ《루스키 미르》

> “네셀로데는 크림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려는 모습을 보여”

패배와 함께한 마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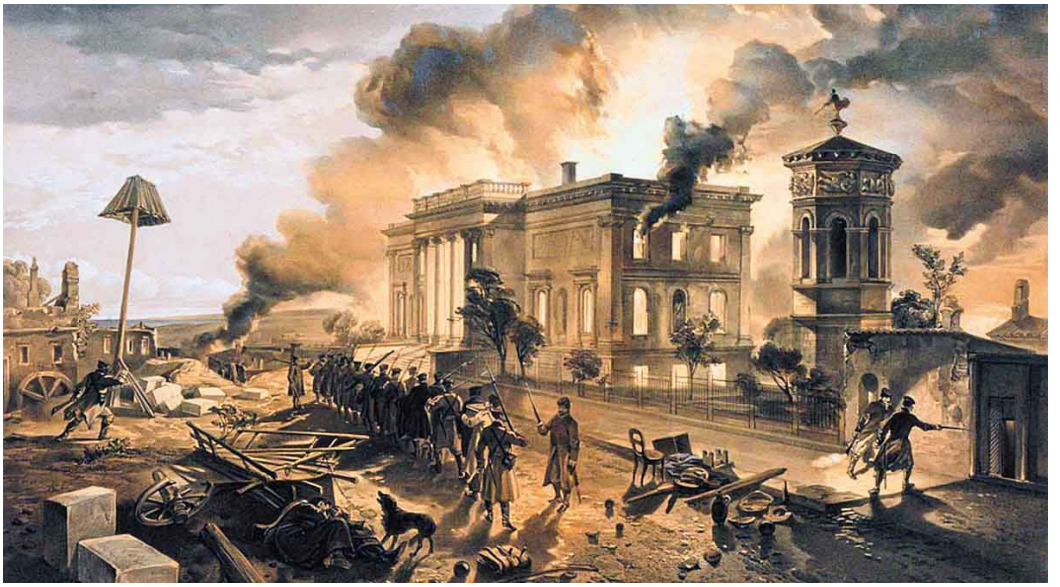
네셀로데와 니콜라이 1세의 마지막 순간은 절대 화려하지 않았다. 크림 전쟁 패배는 그동안 러시아 외교가 쌓아 올린 성과와 대외정책의 성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리고 크림 전쟁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네셀로데에게 돌아갔다. 그는 러시아 패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1850년대 초 네셀로데는 러시아와 오스만제국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우려를 황제에게도 거듭 보고했다. 하지만 외무대신이었던 네셀로데는 크림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네셀로데는 니콜라이 1세와 운명을 함께했다. 러시아 외교의 성공도 함께 누렸고, 크림 전쟁이라는 마지막 실패의 책임도 함께 짊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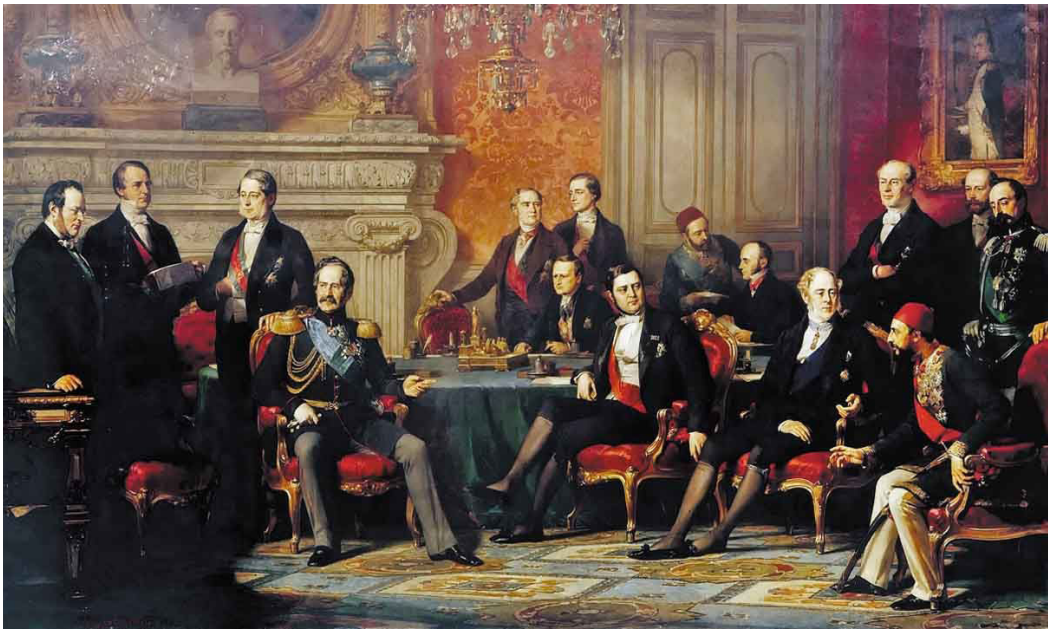
네셀로데는 자신의 퇴임 시점도 스스로 정해 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만 75세가 되는 날을 공직 생활의 마지막으로 정해 뒀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네셀로데의 경력은 1855년 12월에 끝나야 했다. 그러나 그는 1856년 파리 강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크림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려는 모습을 보였다.

백조의 노래

예브게니 타를레는 네셀로데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네셀로데는 새 황제 치하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러시아에 해를 끼쳤다. 물론 이는 그가 반



1855년 8월 30일 연합군이 세바스토폴을 점령한 날 발생한 공공도서관 화재. 1856년 ⓒ《루스키 미르》



1856년 파리 강화조약 조인식 ⓒ《루스키 미르》

역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선견지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네셀로데가 러시아의 운명에 무관심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미래를 깊이 걱정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그가 1856년 작성한 「러시아 대외관계에 관한 메모」다. 이 문서는 흔히 네셀로데의 '정치적 유언'으로 불린다. 역사가 니콜라이 실데르는 이를 네셀로데의 '백조의 노래'라고 표현했다. 이 문서는 그의 외교 경험과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집약된 마지막 정치적 유산이라는 뜻이다.

이 메모에서 네셀로데는 러시아 외교의 기본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크림 전쟁과 동맹국들의 배신을 통해 러시아가 앞으로는 무엇보다 자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봤다. 그는 이렇게 썼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따르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을 받아들여야 한다. 〈…〉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는 유럽의 조약과 몇몇 국가와 맺은 협정을 무력으로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협정을 오직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켜야 한다." 이 대목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네셀로데는 흔히 '러시아'나 '러시아인'의 관점에서 사고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작 그는 크림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네셀로데는 국제질서 유지와 강대국 간 협력을 중시하긴 했지만, 이를 러시아 국익보다 더 우선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힘이 약화하고 외교적 환경이 바뀌자, 기존 노선을 과감

"네셀로데는 국제질서 유지와 강대국 간 협력을 중시하긴 했지만, 이를 러시아 국익보다 더 우선시하지는 않아"

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유언은 국익을 희생한 외교관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한 국제 정세에 맞춰 러시아 외교도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네셀로데의 후임자인 알렉산드르 고르차코프의 외교 노선은 흔히 네셀로데의 정책과 대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르차코프의 유명한 외교 원칙인 "러시아는 화를 내지 않는다. 러시아는 힘을 기른다"라는 말은 사실 고르차코프가 새롭게 제시한 외교 노선이라기보다는 네셀로데의 「러시아 대외관계에 관한 메모」에서 끌어낸 결론에 가까웠다. 즉 러시아는 당장의 대외적 대결보다는 국내 역량을 회복하고 국력을 축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발상은 고르차코프가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네셀로데가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유언에서 분명히 밝혀 둔 외교 원칙이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외교관"

네셀로데가 오랫동안 외교 수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과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성격과 기질,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달랐던 알렉산드르 1세와 니콜라이 1세는 모두 네셀로데 같은 보좌관을 필요로 했다.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했을 무렵 젊은 네셀로데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외교관이 되겠다는 아들의 뜻을 아버지에게서 허락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적었다. 아버지인 빌헬름 네셀로데는 아들이 훗날 단순한 외교관을 넘어 무려 40년 동안 러시아 외무부를 이끄는 인물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아들에게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우려는 완전히 빗나갔다.



네셀로데 백작의 수채화 초상 ⓒ《루스키 미르》

외교에는 무엇보다 섬세함과 신중함, 인내심, 자기 절제, 리더십, 성실함, 현실 감각이 요구된다. 네셀로데는 이런 자질을 두루 갖춘 외교관이었다. 그의 동시대인이자 파리 사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델 드 부안 백작부인은 그를 "너무나도 전형적인 외교관"이라고 평가했다. 이 짧은 평가는 네셀로데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그는 원칙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정치가도, 과감한 모험을 즐기는 인물도 아니었다. 언제나 타협과 절제, 현실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외교관이었다.

> "네셀로데는 타협과 절제, 현실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외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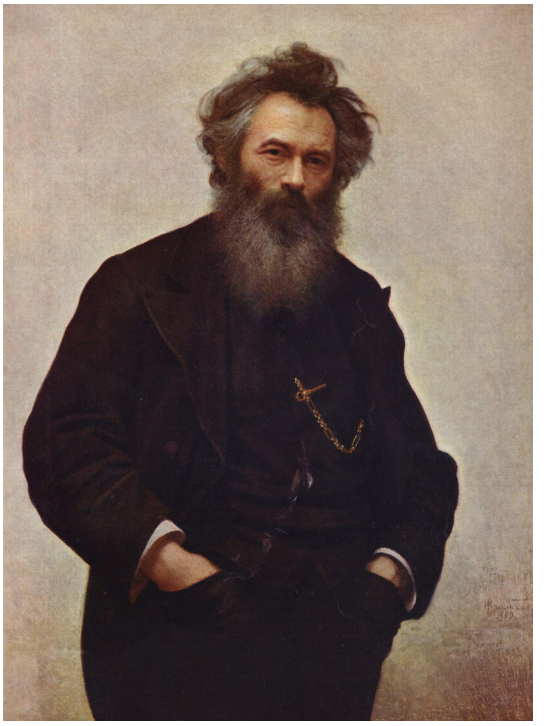
‘러시아 숲’
이반 시시킨 특별전의 의미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러시아, 숲의 왕국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일본을 이해하는 열쇠이듯, 이 책은 러시아인들의 이중성과 러시아 문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저작으로 평가받는다.”[1] 2015년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제임스 빌링턴의 명저 『이콘과 도끼: 해석 위주의 러시아 문화사』(이하 『이콘과 도끼』)를 이렇게 소개했다. 실제로 이 책은 러시아 문화와 역사를 꿰뚫는 빌링턴의 통찰과 혜안이 돋보인다. 예를 들면, 빌링턴은 러시아가 13~15세기 몽골·타타르족 지배기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독특한 문화 발전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물적 토대와 배경으로 다름 아닌 볼가강 상류의 숲 지대를 꼽았다. 『이콘과 도끼』 제2장 서두에서 그는 “한때는 변두리였던 북쪽의 숲 지대가 이제는 독자적 정교 문화의 중심이 됐다”[2]라고 밝힌다. 또한, 그는 러시아 역사 초기에 숲이 “상상을 위한 일종의 늘푸른 장막”으로서 “점점 더 서먹서먹해져 가는 세계인 비잔티움과 서유럽의 도회 생활에서 러시아를 가려 지켜줬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사람들은 숲에서 “오두막을 지을 통나무뿐만 아니라 초를 만들 밀랍, 신발을 만들고 초보적인 기록을 할 나무껍질, 옷을 만들 털가죽, 바닥에 깔 이끼, 침대에 깔 소나무 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숲은 그 비밀 은신처를 아는 사람에게는 고기와 버섯과 산딸기류 과일, 그리고 숲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먹거리인 달콤한 벌꿀도 내줄 수 있었다.” 이처럼 숲은 러시아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줬고, 더 나아가 러시아 문화의 물질적 토대이자 정신적 원천으로 기능했다.

숲이 러시아 삶에서 차지하는 커다란 비중과 중대한 의미는 소피 핑크햄이 2025년 출판한 저서 『참나무와 낙엽송: 러시아와 그 제국들의 숲 문화사』에서도 자세히 분석돼 있다. 핑크햄은 자신의 책이 “수 세기 동안 칭기즈칸의 황금 군단, 러시아 제국, 소련, 그리고 현재 러시아 연방과 다른 탈소 국가들의 지배 영역이었던 북유라시아 숲에 관한 이야기”[3]라고 말한다. 그녀



이반 크람스코이. 「이반 시시킨 초상화」(1880) ⓒ 위키피디아

의 분석에 따르면, "숲의 이야기는 러시아 제국, 소련, 그리고 현재 러시아연방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가 숲의 시각에서 러시아를 새롭게 바라본다면, "러시아 권력의 본질, 러시아 민족주의, 러시아 제국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자아 인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핑크햄은 숲이 러시아 역사 전반에 걸쳐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었고, 선한 것, 보존해야 할 것의 상징이자 소멸에 맞선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누구보다도 소설가와 시인들이 "오랜 세월 숲의 수호자이자 제국의 대리인으로서 민족 정체성 개념을 형성해 왔다"라고 핑크햄은 덧붙인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들인 이반 투르게네프나 레프 톨스토이 등이 숲의 묘사를 통해 러시아 민족 정체성 개념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시시킨, '숲의 차르'

그러나 투르게네프 같은 소설가나 시인들만이 숲과 관련한 러시아 민족 정체성 개념 형성에 이바지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러시아 화가들도 자국의 자연환경에서 지배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숲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참나무에서 소나무, 자작나무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를 대표하는 나무들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재현했다. 특히, 1872년 이반 크람스코이(1837~87)의 주도로 시작된 이동전람파(Peredvizhniki)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른바 '민주주의 경향'의 화가들은 러시아 숲의 존재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를 자신들의 회화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예를 들면, 19세기 러시아 풍경화 거장 중 한 명인 이삭 레비탄(1860~1900)을 비롯하여 이반 시시킨(1832~98), 빅토르 바스네초프(1848~1926), 미하일 네스테로프(1862~1942) 등 이동전람파 회화 운동에 참여한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숲

> “시시킨은 자신의 그림에서 숲을
> ‘러시아 민족의 서사시적 이미지’ 속에 담아냄으로써,
> 숲과 러시아 민족 정체성 개념 형성에서
>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화가”

과 나무가 특히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시시킨은 자신의 그림에서 숲을 ‘러시아 민족의 서사시적 이미지’ 속에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숲과 러시아 민족 정체성 개념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화가로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시시킨은 러시아 숲과 나무의 생태를 매우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포착하여 웅장한 화폭에 담아냈다고 해서 ‘숲의 차르’이자 ‘숲의 시인’, ‘숲의 거장’, ‘나무의 제왕’ 등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4월 25일 시작된 ‘이반 시시킨. 러시아 숲’ 전시회는 숲을 ‘러시아 민족의 자긍심’이자 ‘서사시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러시아 회화사에서 한 획을 그으며 독보적 위상을 보여준 시시킨의 ‘러시아 숲’ 세계를 새롭게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겨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는 11월 9일까지 7개월 이상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박물관(루스키 무제이)’ 베누아관에서 전시되는 시시킨의 숲 그림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광활한 러시아 숲 곳곳이 대형 화재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오늘날 숲과 나무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도 시의적절하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시시킨의 숲 그림 가운데서 러시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가장 유명한 그림인 「소나무 숲의 아침」(1889)을 모스크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에서 대여해 전시하고 있어서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메르산트》 보도에 따르면,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이 이 그림을 외부에 대여해 준 사례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4] 그래서인지 이번 ‘러시아 숲’ 특별전에서 마지막 전시실에 걸려 있는 「소나무 숲의 아침」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최고 인기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반 시시킨. 러시아 숲’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소나무 숲의 아침」 그림 앞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 RIO

무작위성

‘러시아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시시킨의 ‘러시아 숲’ 특별전은 그가 185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직전에 그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풍경」(1856)에서 1898년 사망하기 1년 전에 그린 「돛대나무 숲」(1897)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숲 그림을 한자리에



이반 시시킨. 「돛대 제작용 소나무 숲」(1897) ⓒ 위키피디아

모두 모아 놓지는 않았다. 게다가, 이번 전시회에 나온 그림들은 '러시아 숲'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만 놓여 있을 뿐 특별한 일관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시시킨이 그린 '러시아 숲' 그림 중에서 뚜렷한 선별 기준 없이 동원할 수 있는 그림 중심으로 무작위로 구성한 것처럼 보였다. 또한, 시시킨이 독일 시절 뒤셀도르프에서 그렸던 그림은 유럽적 양식이 그의 회화 기법에 끼친 적잖은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의 '러시아 숲' 세계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에스토니아 나르바의 해안선을 표현한 그림도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작품도 '러시아 숲'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였다. 시시킨 특별전에서 보이는 이런 무작위성 또는 비일관성은 전시회에 나온 그림 120점이 시대순으로 배치되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시킨의 고향인 옐라부가와 관련된 그림 몇 점을 따로 모아 놓지 않고 여기저기 분리해 전시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론 엄격한 전시 기준 없는 자유로운 작품 배치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번 전시회의 무작위성을 뒷받침하는 비체계성과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폴레시예」, '러시아 숲'에서 빠지다

이런 무작위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결과 가운데 하나로 주목할 점은 시시킨이 '러시아 숲'

> "이번 전시회에 나온 그림들은
> '러시아 숲'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만 놓여 있을 뿐
> 특별한 일관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않아"

을 화폭에 담아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반 투르게네프, 블라디미르 코롤렌코, 알렉산드르 쿠프린 등 19세기 러시아 소설가들과 공통의 예술적 관심을 기울였던 폴레시예 지역에 관한 중요한 그림들이 이번 전시회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폴레시예는 현재 폴란드 남동부와 벨라루스 남부, 우크라이나 북부,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 걸친 유럽 최대 규모의 울창한 산림지대이다. 러시아에서 이곳은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칼루가주 전체와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한참 더 내려가는 오룔주 일부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서쪽으로는 벨라루스 남동부,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맞닿은 브랸스크주 전체를 포괄한다. 이처럼 광대한 규모와 울창한 산림지대로 알려진 폴레시예는 19세기부터 작가와 화가 등 러시아 예술가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다. 예를 들면, 투르게네프는 폴레시예를 끼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오룔주 출신으로 이곳에서 칼루가로 이어지는 산림지대를 1850년대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 특히 1857년 그가 발표한 중편소설 「폴레시예 여행」은 19~20세기를 통틀어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숲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졌다.

이처럼 투르게네프가 폴레시예를 소설 속에서 웅숭깊게 묘사했다고 한다면, 회화에서는 바로 시시킨이 폴레시예의 원시림을 웅장한 화폭에 담아 이 지역의 대표 이미지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남겼다. 그는 1883년과 1892년 두 번에 걸쳐 벨라루스 폴레시예 지역을 방문했고, 이 방문 이후 폴레시예에 관한 그림 세 편을 완성했다. 첫 번째 그림은 1883년 현지 방문 직후에 그린 「폴레시예」로, 창공을 향해 쭉쭉 뻗은 우람한 자태의 소나무들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화폭을 압도한다. 그래서인지 거대한 병풍처럼 늘어선 소나무들 앞으로 서 있는 마차 옆 사람의 모습은 왜소해 보이기만 한다. 이런 점에서 「폴레시예」는 시시킨이 '러시아 숲'에 관해 그린 다른 많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흥미롭다. 그의 '러시아 숲'에서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며 인물이 눈에 띄더라도 숲의 풍경을 지배하거나 압도하는 존재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폴레시예를 그린 작품으로는 「폴레시예 풍경」(1884)과 「폴레시예 늪지」(1890)가 있는데, 이 두 작품 모두 시시킨의 회화 세계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세심한 관심과 세밀한 관찰의 결과로 나온 살아 있는 듯한 숲의 생태 묘사가 매력 만점이다.

선이 굵은 화가

시시킨은 1832년 1월 13일 현재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속하는 뱌트카 지방의 작은 도시 옐라부가에서 태어났다. 당시 이 지역은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웅장하고 풍요롭고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으로 잘 알려졌다. 이처럼 시시킨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부터 독일과 스위스 등에 머물던 유럽 시절을 거쳐 이후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보냈던 수많은 세월까지 숲과 나무 곁에 항상 가까이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 시시킨의 옐라부가 고향 집 근처에는 소나무와 전나무 등 침엽수가 많이 자라고 있었고, 굵직굵직한 소나무들 사이에서 자연과 가깝게 지냈던 특

> "시시킨은 폴레시예의 원시림을 웅장한 화폭에 담아 이 지역의 대표 이미지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남겨"



이반 시시킨. 「폴레시예」(1883) ⓒ 위키피디아

별한 경험은 훗날 그가 나무와 숲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풍경화에서 다른 화가들과 뚜렷이 변별되는 독보적 세계를 구축하는 데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됐다. 시시킨의 숲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변별성은 예를 들어 이삭 레비탄의 풍경화와 비교하면 더 잘 드러나 보인다. 레비탄의 풍경화에서 많이 보이는 나무가 하얗고 밝은색의 자작나무라고 한다면, 시시킨의 풍경화에서는 그런 자작나무가 별로 보이지 않고 짙거나 어두운색 계통의 소나무나 전나무, 참나무가 자주 보인다. 게다가, 레비탄의 그림들에서 자작나무는 가녀리거나 화사한 인상주의 분위기를 풍기지만, 시시킨의 풍경화에서 나무들은 대부분 선이 매우 굵고 색도 아주 짙어 깊이감과 함께 웅대함이 느껴진다.

선이 굵은 나무의 묘사에서 나오는 시시킨의 예술적 특성은 그가 고향 옐라부가 근처에서 받은 인상을 토대로 1878년에 완성한 그림인 「호밀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그림은 이번 '러시아 숲' 특별전에서 「소나무 숲의 아침」과 함께 관객들의 눈길을 특히 많이 붙잡는 작품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널리 알려져 많이 사랑받는 그림인 「호밀밭」 앞에 서면, 전시회에 가서 원작을 직접 대면하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중요한 특징과 인상적인 대목이 비로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그림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과 호밀밭의 두 수평축 사이를 가르며 우뚝 서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굵고 짙은 선으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나무는 시시킨의 '러시아 숲'을 구성하는 대표 수종이지만, 이렇게 드넓은 하늘

> "시시킨의 풍경화에서 나무들은 대부분 선이 매우 굵고 색도 아주 짙어 깊이감과 함께 웅대함이 느껴져"

과 호밀밭 사이에 서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림에서 후경을 장식하는 동시에 수직축을 형성하는 우람한 소나무들은 그 뒤로 보이는 텅 빈 하늘을 채우면서 전경의 수평축을 구성하는 호밀밭과 그 사이를 뚫고 이어진 들길과 균형을 맞춘다. 이와 함께 커다란 소나무들은 그림 속에 있는 사람과 새들의 미미한 존재감을 아예 집어 삼켜버리듯이 이들로부터 관객들의 시선을 빼앗아간다. 호밀밭 사이를 뚫고 사라진 들길 끝에 농부로 보이는 두 명의 여성 존재는 그러잖아도 미미하게만 보일 뿐인데, 그 뒤로 일렬로 서 있는 소나무들이 관객의 시선을 빨아들임으로써 존재감이 거의 없다. 쉬운 말로 하면, 이들은 그림 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러시아 숲'의 주인

「호밀밭」에서처럼 인간 존재가 대자연 앞에서 최소화되거나 왜소하게 보이도록 묘사하는 방식은 '러시아 숲' 전시회에 나온 다른 그림들에서도 발견된다. 1891년에 완성된 「모르드비노바 백작 부인의 숲. 페테르고프」도 이런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는 사냥꾼처럼 보이는 사람이 울창한 전나무 숲 한복판에서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냥총인지 지팡이인지 확실하게 분간하기는 어렵다. 시시킨의 풍경화는 이처럼 사람이 등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이때 사람의 존재는 숲의 풍경 속에서 최대한 작고 흐릿하게 보여서 그림 구성과 내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는 숲에서 인간 존재와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은 「모르드비노바 백작 부인의 숲. 페테르고프」보다 훨씬 더 전인 1867년에 나온 「사냥꾼이 있는 풍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사냥꾼은 햇빛과 그늘이 만나는 숲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아주 작고 흐릿하게 보이는 그의 모습은 숲의 대자연 안에서 인간의 존재와 영향이 지배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점은 시시킨이 앞서 소개한 「호밀밭」이나 「사냥꾼이 있는 풍경」 등에서는 사람의 존재를 매우 미미하거나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묘사하지만, 다른 숲 그림



이반 시시킨. 「호밀밭」(1878) ⓒ 위키피디아



이반 시시킨. 「소나무 숲의 아침」(1889) ⓒ 위키피디아

들에서는 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매우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시킨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 중심적이거나 인간 지배적인 묘사에 관심이 별로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사뭇 대조적으로 시시킨은 앞서 언급한 「폴레시예의 늪지」나 「소나무 숲의 아침」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을 그림 전경에 뚜렷하게 내세우고 형체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한다. 특히, 「소나무 숲의 아침」은 어미 곰 한 마리와 새끼 곰 세 마리가 등장하는 숲속의 아침 풍경 묘사로 유명한데, 이처럼 러시아 풍경화 속에 다름 아닌 곰이 등장하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아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게다가,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곰은 네스테로프의 그림 「성자 세르게이의 유년 시절」(1892~97)에서 사람의 손길을 타서 길든 곰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러시아 숲'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제시돼 있다. 시시킨이 소나무 숲의 아침 풍경에서 곰을 중심 자리에 내세운 이유도 어쩌면 동식물의 꾸밈없는 자연 요소들이 '러시아 숲'의 진정한 주인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리라. 이번 시시킨 그림 특별전의 의미도 바로 '러시아 숲'의 대자연에서 인간 존재와 문명 개입이 최소화되어 그 순수함이 유지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1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54960571

2 제임스 빌링턴. 『이콘과 도끼: 해석 위주의 러시아 문화사』. 류한수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2015. 이하 인용문은 이 책 제2장에서 가져옴.

3 Sophie Pinkham. *The Oak and the Larch: A Forest History of Russia and Its Empires*. W.W.Norton & Company, 2025. 이하 인용문은 모두 이 책 '서론'에서 가져옴.

4 "Лесом к лицу. Русский музей показывает Ивана Шишкина." https://www.kommersant.ru/doc/8624254

전선 밖의 드론
일상 공간과 역사 기억을 강타하다

김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2026년 6월 러시아 주요 지역을 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이 세바스토폴 파노라마 박물관과 모스크바의 일상 공간을 타격함으로써, 드론전이 전선 밖으로 확장되는 상징적 장면을 보여줬다. 과거의 드론 타격이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파괴에 그쳤다면, 이제는 역사 기억, 종교적 성지,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함께 겨냥하는 핵심 위협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박물관 파괴와 모스크바 시내 인프라 통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쟁이 경제와 군사의 영역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도시 관리 시스템 내부로 깊숙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언론은 이를 단순한 군사적 피해가 아니라 '영웅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 훼손으로 보도하며, 드론전이 시민의 하루를 흔드는 일상적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묘사했다. 동시에 '키예프 동굴 수도원' 화재를 우크라이나의 서방 방공망 책임으로 지목하는 양상은 전쟁 피해가 정보전과 국제정치적 무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의 여파가 멀리 떨어진 전선에 국한되지 않고 주유소 앞 대기 줄과 공항 마비처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로 재구성되고 있다. 6월호 「미디어 트렌드」는 전선을 벗어난 드론 공격을 통해 전쟁이 도시의 일상과 역사 기억 속으로 파고드는 과정을 분석한다.

세바스토폴 파노라마 박물관과 전쟁 기억의 훼손

2026년 6월 10일 러시아 언론은 세바스토폴의 대표적 역사문화 시설인 '세바스토폴 방어전, 1854~1855' 파노라마 박물관이 우크라이나 드론 추락으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박물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문화시설이기 때문이 아니다. '세바스토폴 방어전' 파노라마는 크림 전쟁 당시 주요 전투 중 하나인 말라호프 쿠르간 전투를 기념하는 건물로 전투 전문 화가 프란츠 루보(Franz Roubaud, 1856~1928)가 1901년에 작업을 시작해 4년 후인 1905년 세바스토폴 방어전 50주년 기념일에 공개됐다. 러시아 제국, 소련, 현대 러시아의 전쟁 경험이 중첩된 세바스토폴에서 이 박물관은 도시의 과거를 시각적으로 기록해 온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 규모도 러시아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드론 공격으로 박물관의 핵심 전시물인 '세바스토폴 방어전, 1854~1855' 파노라마가 거의 완전히 파괴됐으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화적 손실로 보도됐다. 특히 이 작품이 과거에도 전쟁으로 훼손됐다가 복원된 경험이 있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다.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1942년 독일군의 공습과 포격으로 박물관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당시 파노라마 화폭의 86개 조각이 구조되어 이후 복원됐다.[1] 현재의 피격이 과거의 전쟁 경험과 겹치면서, 박물관 손상은 세바스토폴이라는 도시가 축적해 온 전쟁의 기억과 문화적 상징이 다시 위협받은 일로 해석됐다.

이런 보도 방식은 세바스토폴이라는 도시가 러시아 역사 서술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와도 연결된다. 세바스토폴은 크림 전쟁과 독소 전쟁의 방어전을 함께 기억하는 도시이며, 이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영웅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따라서 세바스토폴 파노라마 박물관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는 러시아인들에게 단순한 문화재 피해 이상의 의미로 전달된다. 이 박물관은 크림 전쟁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인 동시에, 세바스토폴이 반복적으로 전쟁과 방어를 경험해 온 도시라는 역사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언론은 파노라마 박물관의 피해를 단순한 건축물 손상보다 훨씬 더 큰 사건으로 다뤘다. '파노라마의 사실상 파괴'라는 표현은 피해 규모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



세바스토폴 파노라마 박물관 화재 ⓒ《RBC》



화재 발생 전 세바스토폴 파노라마 박물관 ⓒ《코메르산트》

> “세바스토폴 파노라마 박물관 피격 사건은 드론전이 이제 도시의 과거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상징적 공간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했음을 보여줘”

고, 세바스토폴의 역사와 전쟁 경험을 전달해 온 핵심 문화 공간이 훼손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러시아 외무부의 반응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다. 《코메르산트》는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세바스토폴 파노라마 공격을 규탄하며 이를 “민간 시설에 대한 야만적 행위”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2] 이런 공식 반응은 러시아 측이 이번 사건을 하나의 군사작전 결과로만 설명하지 않고, 민간 문화시설과 역사 유산에 대한 공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바스토폴 파노라마 공격은 이런 점에서 2026년 6월 드론전의 변화된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드론 공격의 주요 보도 대상은 발전소, 정유소, 군수 시설처럼 군사적·경제적 기능이 분명한 인프라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역사 전시와 기념의 장소 자체가 전쟁 보도의 중심에 등장했다. 러시아 언론의 시각에서 이 박물관은 과거 전쟁을 기록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전쟁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공간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드론전의 대상이 전력망이나 정유소 같은 물리적 인프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물관과 같은 문화유산 공간이 피해를 보는 순간, 전쟁은 경제와 군사의 영역을 넘어 역사 교육, 집단 기억,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런 점에서 세바스토폴 파노라마 박물관 피격 사건은 드론전이 이제 도시의 과거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상징적 공간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키예프 동굴 수도원’과 성지 피해의 책임 공방

2026년 6월 15일 러시아 언론은 ‘키예프 동굴 수도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우스펜스키 성당 지붕이 불탔다고 보도했다. 11세기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키예프 루스 초기의 대표적인 종교시설 가운데 하나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적·종교적 공간이다. 따라서 이곳은 키예프 루스의 역사와 동슬라브 정교 문화, 정교회 전통을 상징하는 장소로 오랫동안 인식돼 왔다.

그러나 러시아 언론이 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아니었다. 러시아 주요 매체들은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키예프 동굴 수도원’의 피해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한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체계의 미사일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언론 보도에서는 사건의 초점이 시설 피해 자체에 맞춰지기보다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로 이동했다. 즉, 러시아는 수도원 피해 책임을 자국의 공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의 운용과 서방의 무기 지원 문제에서 찾는 방식으로 사건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원 피격 사건은 군사적 피해에 관한 보도를 넘어 정보전의 성격을 띠게 됐

> “러시아 언론에서 ‘키예프 동굴 수도원’ 피격 사건은 기존의 에너지 시설·정유시설·군수공장에 대한 공격 보도와는 다른 성격을 띠는 사례로 다뤄져”

다. 핵심 쟁점은 단순히 건물이 얼마나 손상됐느냐가 아니라, 누가 피해를 초래했으며, 어떤 무기 체계가 사건의 원인이 됐느냐는 문제였다. 러시아 언론은 수도원 피해를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 미국산 무기, 서방의 군사 지원, 문화유산 피해를 서로 연결해 보도했고, 수도원 피격 사건을 전쟁 책임과 서방의 지원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처럼 하나의 문화유산 피해 사건은 군사적 사실 관계와 국제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해석 경쟁의 장으로 전환됐다.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은 ‘키예프 동굴 수도원’이 러시아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도 다시 부각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러시아 정교회 측이 수도원 화재와 우스펜스키 성당 피해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전하면서, 해당 성당이 과거 러시아와 러시아 정교회의 지원을 받아 복원됐다는 점을 강조했다.[3] 이 같은 시각에서 수도원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지리적 의미를 넘어, 러시아 정교회와 러시아 사회에서도 정교 문명권의 공동 기억으로 받아들여지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성당 피해 보도는 군사 뉴스에 그치지 않고 종교 뉴스, 문화유산 뉴스, 문명 담론의 뉴스로 확장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 언론에서 ‘키예프 동굴 수도원’ 피격 사건은 기존의 에너지 시설·정유시설·군수공장에 대한 공격 보도와는 다른 성격을 띠는 사례로 다뤄졌다. 이 사건에서는 시설의



‘키예프 동굴 수도원’ 화재 ⓒ《로시스카야 가제타》

군사적·경제적 가치보다는 종교적 상징성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정교회 역사와의 연관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피해 원인을 둘러싼 보도 경쟁은 성지와 문화유산이 전쟁 상황에서 국제정치적 주장과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드론전과 방공전의 영향 범위가 물리적 인프라에 한정되지 않고 종교와 문화, 공동체의 기억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모스크바 향한 대규모 드론 공격과 전쟁의 일상화

2026년 6월 18일의 대규모 드론 공격은 전쟁이 러시아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점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다. 러시아 주요 매체들은 6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여러 지역을 향해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고, 이를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가 겪은 역대급 드론 공격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드론전이 전선 주변의 군사 뉴스에 더는 머물지 않고, 수도권 상공과 러시아 내부 지역으로 깊숙이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이번 공격의 특징은 피해가 군사시설이나 에너지 시설 하나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RBC》는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정유공장, 쇼핑센터, 아파트, 전원주택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고, 공항 이착륙 제한과 도로 통제, 부상자 발생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4] 즉 드론 공격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을 동시에 흔드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밤사이 수도권 상공으로 접근한 드론을 방공망이 격추하면서 잔해가 쇼핑몰과 아파트, 도로와 차량 위로 떨어졌다. 시민들은 폭발음과 경보를 들었고, 일부 주민은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다. 응급 구조대와 지방 정부는 피해 조사와 복구 작업에 나섰다. 전쟁이 전선의 군사적 충돌을 넘어 도시 운영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이다.

특히 항공교통과 도로 통제는 드론 공격이 도시 시스템 전체에 미친 대표적 장면이었다.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일부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이동 계획도 흔들렸다. 여기에 모스크바 곳곳에서 주유소 앞 차량 대기 줄처럼 불안이 일상적 풍경으로 드러나는 장면까지 겹치면서, 전쟁이 멀리 떨어진 전선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동, 소비, 출근, 귀가와 연결된 도시 생활의 문제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으며, 모스크바주 당국은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과 민원 대응에 나섰다. 이는 드론 공격이 단순한 군사적 방공 통계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민원 처리,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임시 주거, 교통 통제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드론전의 사회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과거에는 에너지 시설이나 군수공장에 대한 공격이 주로 전시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됐다면,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고 접하는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항은 이동의 공간이고, 쇼핑몰은 소비의 공간이며, 아파트는 생활의 공간이고, 도로는 도시의 흐

> “6월 18일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드론 공격은
> 드론전이 전선 주변의 군사 뉴스에 더는 머물지 않고,
> 수도권 상공과 러시아 내부 지역으로 깊숙이 확장됐음을 보여줘”



주유소 입구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 행렬 ⓒ《msk1》

름을 유지하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들이 드론 공격 보도의 중심에 등장했다는 것은 전쟁의 영향이 사회의 주변부를 넘어 일상의 내부로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6월 18일 공격은 러시아 방공 체계와 도시 관리 체계의 과제도 부각했다. 《코메르산트》는 발레리 시랴예프 군사전문가의 평가를 인용해, 각 지역의 공중 표적 추적과 정보 전달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5] 이는 드론 공격 대응이 단지 격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방공망, 민간 항공 통제, 응급 서비스, 지방 정부, 통신·정보 전달 체계를 동시에 시험하는 문제임을 의미한다.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지지만, 그 충격은 행정 시스템 전체로 내려온다.

오늘날 드론은 전장 위의 기계가 더는 아니다. 2026년 6월 러시아 언론이 보여준 드론은 박물관, 성지, 공항, 쇼핑몰, 아파트 위를 지나며 전쟁의 공간을 사회 전체로 넓히는 장치였다.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드론은 경제를 흔들지만, 박물관과 성지를 건드리는 드론은 기억을 흔든다. 공항과 아파트로 날아오는 드론은 시민의 하루를 흔든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드론전은 전쟁이 전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사적 기억과 일상적 삶의 공간, 사회 시스템 내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1 “Панорама обороны Севастополя начала XX века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сгорела при атаке ВСУ.” https://www.kommersant.ru/doc/8728922

2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осудила атаку ВСУ на Панораму «Оборона Севастополя».” https://www.kommersant.ru/doc/8729052

3 “В РПЦ с болью восприняли пожар в Киево-Печерской лавре.” https://rg.ru/amp/2026/06/16/v-rpc-s-boliu-vospriniali-pozhar-v-kievo-pecherskoj-lavre.html

4 “Массовая атака дронов на Москву и Московскую область. Главное.” https://amp.rbc.ru/rbcnews/rbcfreenews/6a484b7d9a79478675644630

5 “Военный эксперт: атака на Москву выявила проблему с передачей данных о БПЛА.” https://www.kommersant.ru/doc/8741548